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현대소설에 나타난 외도 모티프 연구

- 2000년 전후의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



200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오 영 이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현대소설에 나타난 외도 모티프 연구

－ 2000년 전후의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송 명 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오 영 이

오영이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2월 일



주심 문학박사 조 동 구 (인)

위원 문학박사 송 명 희 (인)

위원 문학박사 김 남 석 (인)

목 차

- 영문요지(Abstract)

I .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5
3. 연구 방법 및 범위	10
II . 외도의 정의 및 유형	15
1. 외도의 정의	15
2. 외도의 유형	17
III . 현대소설에 나타난 외도 모티프	22
1. 우발형 외도-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	22
2. 낭만적 사랑형 외도- 『결혼은 미친 짓이다』	41
3. 부부 양해형 외도- 『아내가 결혼했다』	56
IV . 현대소설에 나타난 외도 모티프의 시대적 의의	70
V . 결론	78
참고문헌	82

The Study on Adultery Motif of Modern Novels

- Focused on 2000years Korean Novels -

Young Yi Oh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Modern society's personal relationship is decided by the personal selections rather than by the traditions or customs. It means that th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y the personal meaning, not by the nationality, status, or family tradition. Anthony Giddens defined this tendency 'The predisposition toward to a pure relationship' that the decision was given to a person in the personal relationship. This characteristic brings many social problems, such as increasing divorce rate. The severe increase of divorce rate causes serious side effects to our society. This problems trigger the juvenile problems, defect home matters, and marriage evasion to our society. Therefore I think that we need many studies related with the divorce.

I tried to study adultery that caused the divorce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adultery motif of the novels based on the three novels that were published in 2000 years, the divorce rate was the highest year. I scrutinized the motif of the adultery, what they expected from the adultery, what the result of the adultery meant through these novels. I especially focused on the description of the strong woman-led side because the statistics office's document showed that the divorce rate was increased by the women's adultery.

Methodically, I adapted the text Frank Peterman's 'The classification of the adultery types' to the motif of the adultery. He classified the adultery as 'An accidental adultery' caused by without prior plan, 'A past time adultery' aimed at the realization of the sexuality, 'A romantic love adultery' brought by the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the other man not with her spouse and 'The adultery of the mutual consensus' happened by the mutual approval. I excluded the 'A past time adultery' from this paper. The reason is that the case that the woman has adultery for sexuality is rare because woman tends to expect more emotion than man and we can't find the materials that dealt in the motif in the novels as the revelation of the reality.

After classifying three adultery types appeared on each text, I studied Anthony Giddens's the conception of the love (passionate love, romantic love, consensual love etc.) and looked into the pursuit of personalities of the novels.

In the first text, in 『The only special day in my life』 by Jeon Kyong Lin, there appeared wife's adultery as the revenge of the husband's extra marital affair. It proceed as the traditional 'An accidental adultery' and Giddens's 'A passionate love' at the same time. Namely, this adultery led to the catastrophe that made us lose reality by immersion for the other person too much. The second text, Lee Man Goy's 『Marriage is a crazy thing』 deals with 'Romantic love adultery' which focused on the realization of romance previously missing due to a shortage of the husband's attention. This is a typical example of Giddens's 'A romantic love'. Whereas romantic love has the aspect of reflection absent in passionate love, it leads to the end of adultery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sweetheart's wound. The last text, Park Hyeon Wook's 『My wife was married』 showed the 'The adultery of the mutual consensus' based on the couple's mutual understanding. This is the ideal adultery type that Giddens thinks the conception of 'consensual love'. However, this type recognized the sexual autonomy to the extent it allows the bigamy, it is socially hard type to accept the ending that everybody related with this situation emigrated.

As we examined the adultery motif, it is that the adultery is out of the system and unacceptable in the society. That is why the ending of the works couldn't defend the adultery. However it can't be denied that the adultery is the one way of the recovery from the modern man's solitude and alienation. The matter is not we can ensure the relationship as the system but how much we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emotionally.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hat we should study the affection relationship of the modern society depending on the familiarity.

key words: adultery, passionate love, romantic love, consensual love,
pure relationship.

I. 서론

1. 연구목적

결혼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결혼관도 변해왔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현상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인 사건이라고 본다면 결혼의 의미는 시대를 달리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 갖는 속성 중의 하나인 외도 또한 마찬가지다. 외도라는 개념은 일부일처제의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결혼관이 변하면 외도에 대한 가치관도 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도란 일부일처제 결혼이 갖는 배타성, 그 중에서도 성적인 구속과 배타성을 대변해주는 어휘로서 흔히 불륜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인다. 불륜(不倫), 즉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직접적인 조어(造語)가 말해주듯 기혼자가 혼외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외도로 인한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이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위를 차지한다. 국가통계포털¹⁾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이혼 건수는 124,590건이다. 2005년 128,46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다소 떨어진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혼율 세계 1위인 미국과 비교해 비율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시해야 할 것은 배우자의 외도, 그 중에서도 여성의 외도가 갈수록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²⁾

초기 인류는 집단혼을 했고, 중세의 결혼에서는 장자 계승과 상속이 목적이었던 반면, 근대 이후에는 사랑이라는 개인적이고 낭만적 요소가 결혼의 핵심이 되었다. 그리고 21세기로 진입한 지금은, 결혼을 통해 자아를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가, 결혼으로 삶의 질이 얼마나 보장되는가 하는 것이

1) KOSIS(국가 통계 포털), 이전의 대한민국 통계정보홈페이지 <http://www.stat.go.kr/statcms/main.jsp>의 변경된 명칭.

2) 2007년 전체 이혼의 7.8%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접수된 이혼소송 223건 중 116건이 남성에 의해 기소되었다.(대한민국 통계청 자료).

관건이 되었다. 결혼을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 가족애, 소속감 등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결혼에 대한 의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변화한 결혼관은 이혼 사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2년 10월 21일 중앙일보 사회면에는 새롭게 등장한 이혼 사유로 ‘아내가 인터넷 중독자여서’, ‘남편이 마마보이여서’, ‘남편에게 장래성이 없어서’, ‘게으른 아내 때문에 아침을 못 먹고 출근해서’ 등이 있다는 기사가 다루어졌다. 이는 기존의 이혼 사유 중 성격 차이 다음으로 빈번 했던 가족 간의 불화, 특히 고부간의 갈등이나 정신적, 육체적 학대 등의 사유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쌍방적이며 개인적인 사유로 변했음을 보여준다.³⁾ 즉, 20세기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했던 것은 전쟁이나 경제공황 등의 결혼 외적인 요소가 배경으로 작용되었지만 지금은 부부 사이의 내적 갈등 요소가 이혼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점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혼이나 외도를 다루는 문학작품이 갑자기 많아지는 현상으로 가시화되었다. 여성운동의 전개와 함께 확산되기 시작한 페미니즘적 사고는 가부장적 결혼제도의 폭력성과 그 속에서 여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질곡의 시간들을 서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여러 문학 형식에서 이혼, 외도, 그로 인한 가족의 해체가 단지 소재가 아닌 주제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⁵⁾

부부 사이의 요구가 가족 전체를 위한 것이거나 가족을 위해 어느 한쪽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가치관은 붕괴되었다.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3) 2007년 현재 이혼사유를 보면 성격차이(58,367건)>기타사유(18,886건)>경제문제(16,973건)>가족간 불화(10,006건)>정신적·육체적 학대(5,964건)>사유미상(3,809건)>건강상의 사유(914건) 등의 순서이다. 이 중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50%이상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한다(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홈페이지).

4) 로더릭 필립스, 박범수 역, 『이혼의 역사』, 동문선, 2001, 411면 참조.

5)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발표된 소설 중에 외도 자체가 주된 테마로 제기되는 작품의 예를 들자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 위주로 예시하기로 하겠다. 우선 문학사상사가 주관하는 이상문학상 수상작 및 후보작 중에는 차현숙의 『나비, 봄을 만나다』(1996),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1998), 권지예의 『뱀장어 스텝』(2002) 및 『꿈꾸는 마리오네트』, 전경린의 『부인내일의 철학』(2003), 고은주의 『각테일 슈가』(2004), 한강의 『몽고반점』(2005) 및 같은 해의 후보작 이해경의 『도시의 불빛』, 정미경의 『밤이여 나뉘어라』(2006) 및 수상자의 자선작 『나의 피투성이 연인』과 『발칸의 장미를 내게 주었네』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현대문학상이나 동인문학상 수상집에도 외도를 주제로 하는 작품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 은희경의 『그녀의 세 번째 남자』, 서하진의 『모델하우스』와 『명백히 부도덕한 사랑』, 그리고 한강의 『해질녘 개들은 어떤 기분일까』 등의 작품 외에도 다수가 있다.

나 아내의 개인적인 불만과 요구가 표면화되는 개인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개인화 현상은 높은 이혼율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족 전체의 안녕에 앞서 개인적 불만이나 요구의 충족 여부가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부부 사이에서 사적 영역을 확보하는 일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가장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외도에 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아직도 간통죄가 존치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외도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다면, 이로 인한 이혼과 제반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혼율이 급증하던 2000년을 전후해 발표된 소설 중에서 여성의 외도 모티프가 주된 서사를 이루고 있는 작품을 텍스트로, 외도에 대해 고찰해 보려한다. 2000년대를 전후로 갑자기 늘어난 이혼의 사유 중 급격히 증가한 항목이 바로 외도이고, 그 중에서도 여성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많기 때문이다.

소설이라는 문학형식의 본질적 성격 중 하나는 현실의 반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여타의 장르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현실을 재현해 낼 수 있는 것이 소설인데 그것은 소설이 갖는 이야기 구조로부터 기인한다. 이는 관념이 아닌 ‘이야기’ 형식으로 독자에게 수용될 때는 그만큼 현실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로 복제되기도 한 작품 중에 여성의 외도 모티프를 지닌 세 편의 소설을 선택해, 현재 우리 사회의 외도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 텍스트로 삼는 작품은 전경린의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1999), 이만교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2000), 그리고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2006) 등이다. 위의 세 소설을 텍스트로 하게 된 것은 인물이 보여주는 외도의 모티프가 외도의 전형적인 양상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내 생애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에서는 ‘우발형 외도’로서 주위의 정황이나 자신의 좌표에 대한 점검 없이 무작정 상대에게 몰입해가는 외도의 유형이 등장한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는 결혼을 해놓고도 총각과 버젓이 두 집 살림을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경제논리에 의한 결혼을 하면서도 낭만적 사랑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낭만적 사랑형 외도’의 모티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결혼했다』에 이르면 배우자의 동의하에 아예 중혼을 하고, 비독점적 다자간 결

혼을 실현해가는 ‘부부 양해형 외도’가 펼쳐진다.

결혼이 갖는 성적 배타성 즉, 성에 대한 소유의 개념이 많은 결혼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일부일처의 현행 결혼제도가 갖는 성적 배타성의 그림자가 결국 외도라 할 때 이를 윤리적 차원에서 비난하기에 앞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혼율이 급증하는 추세와 시기를 같이 하면서 발표된 소설 중 외도 모티프를 지닌 작품을 통해, 외도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2. 연구사 검토

결혼과 외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되어왔다. 종교, 철학, 사회학, 생물학, 및 역사학 등 결혼은 인간의 모든 관점에서 논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중 국문학에서 이와 관련한 주제로 소설을 연구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우선, 본 논문의 텍스트가 되는 세 작품과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에서는 외도의 동기와 더불어 남녀가 다르게 적용시키는 성 규범에 대한 김무숙의 연구가 있었다.⁶⁾ 이중적 성규범을 가진 남성과 결혼에 인생의 모든 의미를 두는 여성 모두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라는 관점으로서, 우리 사회가 적용하고 있는 차별적 성 윤리에 대한 반성적인 논의라 할 수 있다. 김윤선⁷⁾은 최근의 소설에서 보이는 변화된 결혼관을 부부의 정체성이라는 시각으로 살피고 있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토대로 한 결혼관계 안에서 개인적 욕망의 실현은 결혼 균열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분석이다. 윤지관⁸⁾은 운명론적 세계관을 지닌 인물에 의해 사회구조의 폭력성이 은폐된다는 관점으로 이 소설을 분석한다. 기성질서가 가진 억압과 인간 내면의 자율성 사이에 발생하는 대립을 자각하지 못하고 단지 개인적 체험으

6) 김무숙, 「전경린의 『내 생애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에 나타난 외도와 이혼에 관한 고찰」, 『새얼논문집』 제14권 제1호,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새얼어문학회, 2001.

7) 김윤선, 「한국현대 소설에 나타난 부부 정체성」, 『인간연구』 제10권 제2호, 카톨릭대학교 인간연구소, 2006.

8) 윤지관, 「비평은 있다-신경숙·은희경·전경린과 관련하여」, 『창작과 비평』 2002년 겨울호, 창작과 비평사, 2002.

로만 결혼에 대처하는 주인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인 연관성을 배제하는 주인공의 설정은 결혼이나 삶 자체를 개인적인 것으로만 환원시켜 버리는 가부장적 질서의 폭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경운⁹⁾은 결혼한 여자의 외도를 범죄시하는 이유가 근대성의 음모 즉, 고귀한 조상을 중시하던 귀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줄 후손을 중시하는 부르주아로 권력이 이양된 결과라는 데 주목한다.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와 대비해가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담론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정체성의 발견이라는 관점으로 이 작품을 다루면서 우회적 저항으로서의 여성적 글쓰기로 해석하는 정혜경¹⁰⁾의 논문과 남성적 가치에 매몰되는 여성의 비자발적 자아감과 함께 사회가 허용한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폭력이나 외도 및 억압으로 몰고 가는 남성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김현실¹¹⁾의 논문이 있었다. 그리고 송명희는 혼외정사를 한 남편에게 똑 같이 혼외정사로 갚아주는 여성을 통해 성적 주체성을 추구하되, 어디까지나 수동적이고 사회규범을 거스르지 못하는 여성의 한계를 지적하거나¹²⁾ 외도를 한 이후 여성의 홀로서기 즉, 경제적 자립이나 양육, 가정의 해체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¹³⁾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대한 연구는 우선, 김형중¹⁴⁾의 연구가 있다. 결혼이 지닌 상투성을 표면화시키면서 결혼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고 배역이므로 철저히 '보여주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란 고작해야 패턴화 된 상품이거나 패턴화 된 취향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 상투성에 대해 회의한다. 그리고 결혼이 초래하는 지루한 연기가 바로 '미친 짓'이라고 일축하면서 몰개성화 된 소비 패턴 속에 결혼이 몰락해가는 현상을 논하고 있다. 김용희¹⁵⁾는 탈수된 낭만으로서의 결혼과 일상을 몰개성화라는 관점으로 고찰한다. 일상에 대한 환상적

9) 정경운, 「여성의 '몸'을 보는 두 개의 서사 ; 문자와 영상-전경린의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과 변영주의 『밀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10) 정혜경,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변모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1) 한국문학연구회,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길사, 2001.

12) 송명희, 「성에 관한 도발적 상상력과 논쟁적 소설들」, 『타자의 서사학』, 푸른사상사, 2004.

13) 송명희·여성연구회, 「불륜과 이혼에 관한 서사」, 『우리 이혼할까요』, 푸른사상사, 2003.

14) 김형중, 「최근 소설의 영화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15) 김용희, 「결혼과 일상에 대한 문화비평적 접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탈출구인 동시에 일상성을 재생해내는 견고한 시스템으로서의 결혼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삶의 준거점이 희박해지고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될 때 인생의 유의미성을 확인해주는 자리에 존재하는 것 또한 결혼이라고 말한다. 즉, 일상과 비일상, 질서와 일탈, 낭만과 탈낭만의 과정을 전유하면서 결혼과 일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쉽게 변질되는 사랑의 환상과 그 유용성을 부정하는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결혼을 설명하는 백지연의 연구가 있는데¹⁶⁾ 사랑의 문화적 기호들 즉, 경제적 조건이 우선시되는 결혼시장, 연애의 기술 속에 스며있는 물신화된 코드,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사랑에 대한 환상 등을 통해 자기연기술마저도 철저한 쾌락이 될 수 있음을 포착해내고 있다. 그리고 황광우¹⁷⁾는 요즘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캐릭터라는 시각으로 여주인공을 바라보면서 결혼의 본질과 정체성을 찾고 있다. 사랑은 증발하고 조건과 배경으로만 결혼을 하는 세대와 감정적 사랑을 남발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상실해가는 결혼의 현주소에 대한 고찰이다.

마지막으로, 2006년 제2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아내가 결혼했다』에 대한 연구 자료는 찾기 힘들었다. 위낙 최근에 발표된 작품이기도 하고 현재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작가를 두고 논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인 듯하다. 유희적 문체가 주는 가벼움과 진정성의 측면을 다룬 김미정의 논의¹⁸⁾, 그리고 비독점적 다자연애방식을 통보받은 남성의 무능함과 어설피품을 지적하는 정혜경의 논문이¹⁹⁾ 필자가 발견한 자료의 전부였다.

본 논문의 텍스트가 되고 있는 세 편의 소설을 연구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가부장적 일부일처제 결혼의 억압과 폭력성에 대한 고발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일처제 결혼의 대표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성적 배타성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특히 남성의 '소유'의식에 기반한 성적 배타성이 결혼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면서 남성의 독점욕은 아내뿐 아니라 남편도 그 희생자라는 시선이 강하다. 또한 부부간의 소통부재나 외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도 다양하게 드러났

16) 백지연, 「낭만적 사랑은 어떻게 부정되는가」, 『창작과 비평』 2004년 여름호, 창작과 비평사, 2004.

17) 황광우, 「결혼과 가족에 대한 두 개의 영화」, 『사목』 2004년 4월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4.

18) 김미정, 「어떤 호모루덴스들의 기원과 발생」; 박현옥의 『동정 없는 세상』, 『새는』, 『아내가 결혼했다』를 중심으로, 『문학사상』 2006년 7월호, 문학사상사, 2006.

19) 정혜경, 앞의 논문.

다.

아쉬운 것은 중산층의 교육받은 여성에 한하고 있다는 점과 결혼이나 이혼, 외도에 대한 공식적인 고찰을 찾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외도에 초점을 두고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보이지 않았다. OECD국가 중 이혼율 2위에 올라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어떠한 결혼관들이 존재하며 부부간의 소통이나 외도, 이혼 등에 관한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불거지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고 본다.

결혼은 많은 사회 현상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외도 또한 마찬가지다. 다양한 사회현상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 결혼 또는 외도이기에 국문학 외적인 관점으로 논의 된 연구들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에 대한 개방적 성향과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성규범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²⁰⁾ 그리고 결혼시기가 갈수록 연장되는 이유를 분석해 결혼의 성역할 분리규범과 경제조정에 의한 우발적 결합성, 그리고 그로 인한 소통부재와 외도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도 있었다.²¹⁾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거나²²⁾ 계약동거, 간통, 성매매 그리고 스와핑 등 외도범죄를 통해 혼외정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바라본 연구²³⁾, 부부간의 친밀성이 결혼 생활의 갈등 생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외도나 이혼에 작용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²⁴⁾, 그리고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개인적 가치관이 확장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을 토대로 이혼율 감소를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 연구²⁵⁾등도 있었다. 그 외에도 결혼과정에서 생긴 부부의 유대감이 이혼과정에서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고찰한 논문²⁶⁾, 결혼생활에 있어서 독립성이나 의존성 및 자기해석관에 근거한 만족도를 분석한 논문,²⁷⁾ 이혼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통해 결혼을 되짚어보고

20) 정기원·성한기,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06.

21) 박경숙·김영혜·김현숙,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원인」, 『한국인구학』 제28권 제5호, 한국인구학회, 2005.

22) 김정석,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06.

23) 천정환·이종갑, 「외도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교정복지연구』 제9집, 교정복지학회, 2007.

24) 김수연, 「친밀성을 중심으로 본 결혼과 이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5) 유재성, 「한국의 이혼율 감소를 위한 제안」,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04년 7월호, 기독교상담학회, 2004.

26) 이정덕,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학지사, 1988.

27) 현경자,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4호,

이혼 후의 적응도를 관찰한 논문²⁸⁾ 등이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부장적 결혼제도 안에서 불리한 여성의 입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는 것이다. 소설에 나타난 결혼관에서 문제적 요소도 다각도로 조명되고 있고 부부간의 소통부재와 정체성의 문제, 외도의 이유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외도를 모티프로 하는 단일 작품의 분석은 결혼의 여러 상황과 더불어 이야기되고 있지만, 여러 작품을 비교해 양상을 살피는 연구는 없었다. 특히 외도의 모티프를 중심에 놓고 공시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결혼이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여러 가지 형태로 혼재한다. 이혼이나 외도의 동기 또한 그러하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의 중대 사유가 되기 시작한 시기와 때를 같이해 발표된 소설들을 통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결혼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혼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외도의 모티프가 어떠한 형태로 혼재하는가를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미국의 사회학자 프랭크 피트먼은 외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²⁹⁾ 첫째, 우발형 외도, 이는 사전에 계획 없이 어쩌다 일어난 정사로서의 외도를 말하는데 외도를 하게 되는 동기가 강하며 배우자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띤다. 둘째, 유희성 또는 습관성 외도는 섹스를 오락으로 여기며 그 대상을 찾아다니는 유형의 외도를 말한다. 만성적이거나 중독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외도를 하나의 놀이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낭만적 사랑형 외도는 서로 사랑한다고 느끼는 관계에서 지속적인 외도행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일상으로부터의 도피를 위해 대체로 격렬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부 양해형 외도로서 결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때로는 별거를 하기도 하면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28) 손정연,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9) 양유성, 『외도의 심리와 상담』, 학지사, 2008, 89-90면 참조.

서)배우자가 제 삼자와의 성적 관계를 용인하는 유형을 말한다.

피트먼의 외도 유형분류 방식은,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외도의 모티프를 고찰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다. 결혼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현대인들이 외도를 하게 되는 동기와 외도를 통해 추구하려는 바가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성의 원리를 내세우는 엔소니 기든스³⁰⁾는 현대 사회와 전통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내부-준거적 체계(internally referent system)를 제시한다. 즉, 이전의 관습이나 전통에 의한 행동들이 이제는 사회 체계의 내적 논리로 흡수되어 실행된다는 것인데, 이전의 성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자연의 섭리로 여겨졌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현상 등을 설명한다. 기든스의 이러한 논의는 페미니즘적 해석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민주화 구현이라는 측면도 강하다. 즉,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이라거나 대결구도를 지향하던 종전의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나아가,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시대사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가족 내의 소외나 유폐, 그로 인한 외도나 이혼 등의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할 것이다. 기든스가 내세우는 이론의 핵심은 순수한 관계, 조형적 섹슈얼리티, 합류적 사랑 등의 개념이 타자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평등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또한 이처럼 사적 영역으로 확장된 민주주의적 사고는 그동안 관계 외적인 것, 즉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던 남성들보다는 여성에 의해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소외되고 타자화되었던 여성이 중심부로 진입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 평등을 구현하려는 여성에게 더 많은 행동강령을 요구하는 이론이기도 하다.³¹⁾ 뿐만 아니라 외도에 있어서도 여성이 수동성을 벗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외도가 더욱 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기든스는 재생산의 필요로부터 해방된 성을 ‘조형적 섹슈얼리티’라 정의한다. 가계계승의 목적으로 강요되던 성이 사적 영역화되면서 인간관계 역

30) 엔소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2000, 14-16면 참조.

31) 김은정,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해체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1-69면 참조.

시 더 이상 관습이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관계의 형태나 존속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 결혼관계가 엄격하게 관계 외적인 규범과 관습으로 통제되었던 반면, 현대의 결혼은 친밀성과 애정 등의 관계 내적 속성에 의해 유지되거나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기든스는 순수한 관계(pure relationship)로 정의한다. 순수한 관계는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 간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시대의 결혼은 점점 더 순수한 관계의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고 개인의 의지에 의해 쉽게 외도나 이혼 등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즉, 순수한 관계로 이행할수록 증대되는 친밀성의 영역이, 조형적 섹슈얼리티의 개념 및 피임과 낙태술의 발달과 연관해 외도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든스는 순수한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일수록 개인은 세습이 아닌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존재감의 충족을 위해 많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로부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는 또 다른 대상을 찾아 이를 추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기든스는 사랑의 종류를 열정적 사랑, 낭만적 사랑, 합류적 사랑으로 구분하고 있다. 열정적 사랑이란 ‘감정적 연결이 너무 강해 통상적 책무를 무시하게 만드는 속성을 갖는다’고 한다.³²⁾ 그리고 낭만적 사랑이란, 특정한 대상에 대한 환상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타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자신의 결여를 사랑의 대상을 통해 채우려는 속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열정적 사랑과는 달리 사랑과 함께 성찰이 따르고 그로 인한 자아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여성의 정신을 무가치하고 불가능한 꿈으로 채우려는 남성의 음모 즉, 낭만적 사랑이란 근대적 산물로서 기존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한 허위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재클린 살스비가 정의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³³⁾ 그리고 합류적 사랑의 개념은 기든스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로 흐르던 두 개의 지류가 합쳐져 하나의 강물이 되어 흐르듯, 두 사람의 정체성이 과거에는 달랐음을 인정하는 사랑이다. 또한 배타성을 지양하고 미

³²⁾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77-79면.

³³⁾ 재클린 살스비,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9, 113면 참조.

래의 새로운 정체성을 협상해가는 형태이기도 하다.

빠르게 이루어진 산업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식의 전환은 많은 현대인에게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하게 했고 결혼관의 지형도를 변화시켰다. 사회 전반에서 그러하듯 이제 결혼 안에서도 가부장적 질서와 억압은 설득력을 잃어간다.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해 수직적으로 구조화되던 부부관계는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사회진출, 그리고 경제력 확보로 인해 수평적으로 재편성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혼이 급증하는 시기인 2000년대를 전후해 발표된 소설 세 편을 텍스트로 해서 이 시대의 결혼관 및 외도, 이혼에 대한 의식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주된 방법론으로는 프랭크 피트먼이 분류한 외도의 유형을 적용하되,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되는 습관성 또는 유희성 외도는 제외했다. 현실적으로 여성은 정서적 교감 없이 성중독과 같은 습관성 외도를 이어가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여성이 외도를 하는 주된 동기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모티프가 등장하는 작품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성중독적 모티프로 펼쳐지는 여성의 외도를 다루는 소설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 외에도 본 논문에서 말하려는 외도는, 정서적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유희적이거나 습관적인 외도는 논지와 직결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을 통해서는 ‘우발형 외도’로 분류되는 외도의 모티프를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상대에 대한 위험한 물입을 수반하는 열정적 사랑의 요소를 중심으로 한다. 그 다음, 이만교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통해 ‘낭만적 사랑형 외도’의 모티프를 고찰하는데, 열정과 함께 환상성을 지니는 낭만적 사랑의 관점으로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결혼했다』에서는 ‘부부 양해형 외도’의 유형을 살펴되 합류적 사랑의 요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Ⅱ. 외도의 정의 및 유형

1. 외도의 정의

외도는 결혼 관계 안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다. 정서적인 차원이 아니라 성관계를 가져야만 외도로 정의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일반적이다. 그런데 외도가 기혼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 외에, 모든 면에서 합의된 외도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심영희³⁴⁾는 연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간통의 법적 개념은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리고 외도가 범죄 시되었을 때를 일컫는 간통의 사회학적 개념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첫째, 간통자가 기혼자일 것. 둘째, 간통이 강제적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 관계일 것. 셋째, 간통이 정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 관계일 것. 넷째, 그 육체적 관계가 결혼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관계일 것 등이다. 그런데 심영희가 정의한 간통의 개념은 기혼자의 강간과 매춘에 대해서는 외도나 간통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즉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을 강간한 것은 외도가 아니라 강간 범죄이며 매춘 행위는 결혼을 위협하지 않으므로 외도로 보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1991년의 저서에 의한 것이므로 2008년 현재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에 비해 미국의 셸리 글래스는 『혼외관계의 정당화』³⁵⁾라는 논문에서 외도의 개념에 결혼 밖의 성관계만이 아니라 결혼 밖의 정서적 관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외도는 성교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아왔는데 그것은 남성의 편견이 반영된 기준이라는 것이다. 즉, 남성에게는 성관계가 중요한 것이지만 여성에게는 정보다는 감정이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성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남성의 가치관만을 수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글래스가 내리는 이러한 정의는 결혼과 외도의 실상에 대한 여

34) 심영희,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1, 28-30면 참조.

35) Glass, S. P and Wright, T. L, 『Justifications for Extramarital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 29, NO. 3, August 1992.(김예숙, 『외도, 결혼제도의 그림자인가』, 형성사, 1995, 17면에서 재인용)

성적 입장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정서적 관계를 가지는 것도 외도로 간주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성적 관계 못지않게 정서적 유대도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김예숙은 외도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 없이 배우자 외의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한다.³⁶⁾ 그리고 외도의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만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결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외도이다. 둘째, 성관계가 있어야 외도이다. 셋째,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외도이다. 넷째, 매매춘도 외도이다. 다섯째, 이성애자와의 관계여야 외도이다.

양유성은 외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³⁷⁾ 즉, 외도는 ‘기본적으로 결혼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측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부부의 정서적 또는 성적 독점성에 대한 계약을 위배한 것으로서 부부 본연의 관계와 그에 다른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이탈의 의미’를 갖는다. 외도는 본질적으로 배신행위이다. 따라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면보다는 어둡고 부정적인 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외도는 기본적으로 성을 전제로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외도로 보아야 하는가, 즉 가벼운 성적 접촉도 외도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성이 동반되지 않는 관계도 외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18일 서울지방법원의 판례³⁸⁾를 들어 성관계가 없더라도 외도로 인정하고 있다. 성관계의 유무를 떠나 정서적 관계도 외도의 범주에 넣는 것은 혼인 후 정조의 의무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한다.

2. 외도의 유형

외도에 있어서 유형을 분류하는 학설도 다양하다. 먼저, 양유성³⁹⁾은 부부

36) 김예숙, 『외도, 결혼제도의 그림자인가』, 형성사, 1995, 16-24면.

37) 양유성, 앞의 책, 28-31면.

38) 위의 책, 32면 참조(성관계 없이 인터넷 채팅을 한 관계였지만 ‘남녀 성관계가 없더라도 깊이 마음이 끌린 상태이면 바람을 피웠다는 말이 합당하다’고 판결한 사건).

39) 위의 책, 88-89면 참조.

관계에 있어서 힘의 역학관계를 기준으로 외도의 유형을 분류한다.

첫째, 다양성 추구형 외도가 있다. 이는 외도의 시기가 기준이 되는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도를 한다면 계속 다양한 상대와 외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외도가 발생한다면 대상과의 지속적인 외도를 진행할 확률이 높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긴 했으나 개인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회에서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결혼관계를 인정하지만 이러한 의미를 개인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유형이다.

둘째, 결혼 보완형 외도가 있다. 결혼 생활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면서 결혼에서 결핍되는 요소를 외도를 통해 채우려하는 경우이다. 결함이 있는 결혼생활이지만 끝내고 싶지는 않고 그것을 보완하거나 대체해보려는 의도로 이루어진다. 주로 자녀의 행복과 장래를 위해 결혼을 유지하지만 배우자의 경제력에 의지해야 하거나, 때로는 자신의 삶에는 배우자도 필요하고 애인도 필요하다는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하다.

셋째,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외도도 있다. 가정이 있는 젊은 부녀가 자녀들의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다가 탈선을 하거나 부유해 보이는 이성을 성적으로 유혹해 함정에 빠뜨리는 범죄형 외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외도가 일어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견해도 있다.⁴⁰⁾

첫째, 갈등 회피형 외도는 결혼생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티프를 말한다. 이 유형은 부부가 서로의 차이와 실망에 대해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한다. 갈등을 회피하는 부부는 새로운 사건, 예를 들면 출산이나 직장에서의 변동사항 등이 생겼을 때 이를 배우자와 의논하지 않음으로써 고독감과 소외를 느끼게 되고 그 결과 결혼 밖으로 눈을 돌려 분출구를 찾게 되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은 이혼 발생률이 낮은 편인데 외도를 저지르는 배우자도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고 중단하려는 의지도 대체로 강하다.

둘째, 친밀감 회피형 외도는 주로 부부가 서로 친밀감을 발달시키려는 시기인 20대와 30대에 많이 나타난다. 부부는 끊임없이 말다툼을 하고 비난하면서 거리를 두게 되지만 그렇다고 헤어지려는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

40) 이영숙 · 박경란 · 전귀연, 『혼외관계의 이해』, 학지사, 2000, 19면 참조.

다. 서로 힘겨루기를 하거나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보복성의 외도가 발생한다. 이런 유형의 외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부부가 서로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 어떻게 가까워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외도를 하게 되는 배우자는 첨예한 대립관계의 부부 사이에 정서적 완충지대를 둬으로써 친밀감을 회피한다. 결혼 초기에 많은 현상이며 외도에서 정서적 개입이 적게 일어나고 짧게 끝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빈 등지형 외도는 중년 이후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 발생하는 외도로서 종종 가정적인 아버지나 완벽한 어머니에게서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유형의 외도는 단순히 가정에서 자녀가 떠난 후 느끼는 상실을 채우려고 생긴다기보다는 결혼 초부터 정서적으로 황폐했던 것을 생활 속에 묻어버린 데서 기인한다. 부부관계가 애정에 기반하지 않고 있는 경우인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가정을 잘 꾸릴 수 있고 자녀가 결혼의 결핍을 대신해준다고 생각하므로 오랜 동안 결혼과 외도가 병행될 수 있다.

그리고 성중독적 성향을 지닌 외도만을 따로 떼어 다시 세분한 유형분류도 있다.⁴¹⁾ 성중독성은 대한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오이디푸스기의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에게 고착된 사람들이 어머니 아닌 어머니 즉, 대리자와의 성관계를 갖지만 궁극적 만족을 얻을 수 없어 강박적으로 다른 여성들을 찾아 헤매게 되는 현상이다. 주로 남성에게 나타나는 성향으로서 세 가지 정도로 다시 분류된다.

첫째, 관능적 외도는 신체적 쾌락에 민감하다. 이 외도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별 대화 없이 성에 몰두한다. 성적인 쾌감과 자극을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 많은 방법을 추구하고 다양한 도구를 동원하기도 하는데 부부관계에서보다는 외도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하는 데서 발생한다.

둘째, 성적 모험형 외도는 배우자에게 시도하기 어려운 모험적 성관계를 위해 하는 외도이다. 정서적인 개입은 별로 없고 성적 유희에 집착하면서 늘 새로운 성적 자극을 원하게 된다. 따라서 외도의 대상도 자주 바뀌는 것이 특징이며 궁극적으로 만족이 없다.

셋째, 성적 정복형 외도는 대개 하룻밤의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남성으로서의 과시를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가 어떤 사람이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경우의 외도는 당사자가 그러

41) 양유성, 앞의 책, 103-113면 참조.

한 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피트먼은 외도의 유형을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한다.⁴²⁾

첫째, 우발형 외도. 이는 사전 계획 없이 어쩌다 일어난 경우를 일컫는데 대개 일회적이거나 술자리 및 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한다. 때로는 여행 중에 모험적으로 성관계를 벌이거나 유혹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외도를 하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외도관계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고 순간적 선택이 동기가 된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보복하는 차원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둘째, 유희적 또는 습관적 외도. 이는 섹스를 오락 삼아 여러 상대를 찾아다니는 유형으로 성중독적인 측면이 있다. 외도를 저지르는 만성적이고 중독적인 경향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식이 되기도 하는데 일종의 레크리에이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모티프이다. 국내 사례에서는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에서 빈번하고, 요즈음은 등산 동호회에서 이성그룹과 합석하게 되면서 외도로 발전된 경우도 많다.

셋째, 낭만형 외도. 이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성관계로 이어지는 외도를 말한다. 이런 관계는 삶의 어려움에서 도피하기 위해 사랑에 빠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격렬한 감정을 경험한다. 즉, 결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외도의 대상과의 사랑을 통해 극복하려하는 유형이다.

넷째, 부부 양해형 외도. 이는 부부가 결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제삼자와의 장기적인 성적 관계를 용인하는 유형이다. 부부는 거리를 두거나 결혼생활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묵인한다. 이혼에 따르는 복잡한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배우자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외도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양쪽 배우자가 함께 외도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외도에 관한 유형분류는 다양하다.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도 힘의 역학 관계를 비롯해 외도의 시기 및 외도의 동기 등 많은 논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외도가 시작되는 동기를 중심으로 한 프랭크 피트먼의 분류를 차용할 것이다. 남녀관계에 있어서 제도보다는 친밀성이 더 큰

⁴²⁾ Pitman, Frank, Private Lies : Infidelity and Brtrayal of Intimacy. New York : W.W.Nortonand Company, 1989.(위의 책, 89-90면, 재인용)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외도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의 선택에 의해 쉽게 외도를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외도에 이르게 되는 동기와 함께 외도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피트먼의 분류가 적절할 것이다.



Ⅲ. 현대소설에 나타난 외도 모티프

1. 우발형 외도

-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 -

이 소설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삶이 훼손당했다고 생각한 한 여자가 남편에 대한 반감으로 외도를 하게 되는 전형적인 ‘우발형 외도’의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외도의 동기는 우발적이고 보복성이 강했던 반면 외도가 진행될수록 남편에 대한 보복보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재발견과 더불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율리히 벡에 의하면 현대인에게 있어 사랑은 신흥종교에 비유된다. 종래의 귀속적인 신분이나 전통, 자연의 제약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불확실하고 안정되지 못한 선택의 상황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현대인이기 때문이다. 신분이나 국적, 직장, 가문 그 어떤 것도 나를 보증해주지 못하는 시대를 살면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⁴³⁾ 그래서 결혼한 남녀들은 그들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강박적으로 완벽을 추구한다. 그러다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 할 때는 또 다른 사랑 즉, 외도를 시도하게 된다.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에서의 미혼에게 있어 남편은 ‘신흥종교’에 비유될 만큼 전부를 차지하는 존재였다. 그러다 어느 한 순간 세계의 전부였던 그 사랑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자 또 다른 ‘신흥종교’에 몰입한다. 그러나 종교의 경지에 비유될 정도의 열정적인 사랑한다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열정적 사랑은, 틀에 박힌 일상생활과는 구별될 뿐 아니라 실제로 그것과 갈등하기도 하는 어떤 급박함으로 특징 지워진다. 타자와의 감정적인 연루가 너무 강렬해서 그 사람 또는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통상

⁴³⁾ 율리히 벡·엘리자베스 벡·게른샤임 공저,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역,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1999, 289면 참조.

적 책무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열정적 사랑은 가히 종교적이라 할 만큼 진지한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매혹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새로워지고, 그리고 아마 거의 동시에 자기의 이익이나 관심사는 포착할 수 없게 된다. 열정적 사랑에 빠진 사람의 관심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너무도 강력히 묶여있다.⁴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열정적 사랑에 빠지는 일은 위험을 동반한다. 상대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인해 이성적인 사고나 판단이 유보되기도 한다. 사랑이 비이성적인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것도 그 때문이다.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에서의 미혼이 벌이는 외도행각을 따라가 보면 열정적 사랑이 지닌 위험과 비현실성이 잘 드러난다. 앤소니 기든스의 지적처럼 ‘통상적 책무’를 무시하거나, 이유도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새로워지’거나 ‘자기의 이익이나 관심사’를 잊게 만드는 예들이 작품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장에서는 주인공인 미혼, 그리고 부수적 인물이지만 주제와 직결되는 ‘부회’라는 인물을 조명하면서 외도를 통해 열정적인 사랑이 실현되어 가는 모습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그들이 외도에 이르게 되는 동기를 파악해보고 외도가 진행되는 과정을 추적해 갈 것이다. 그리고 외도의 결과 및 외도가 처음의 기대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짚어볼 것이다. 먼저 그들이 외도에 이르게 되는 동기부터 살피기로 한다.

가. 외도의 동기

미혼의 유년기를 일관하는 하나의 정서는 상실감이다. 그녀가 열 두 살이었을 때 중학교 교사이던 아버지가 다른 도시로 전근을 가는 것을 계기로 어머니는 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떠났다. 유독 미혼을 남겨 두고 가야할 이유도 없었지만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남겨지게 된 미혼은 그 후로 엄마의 얼굴을 그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일종의 장애를 갖게 된다. 그러다 스무 살이 되던 해 할머니마저 잃고 난 후에는 더욱 고아의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상실감이 극에 달해 있을 무렵 효경을 만난다.

⁴⁴⁾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76면.

그의 냄새가 좋았기 때문에 뇌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나는 후각을 조금씩 열며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날 그와 함께 나간 것은 순전히 그의 냄새를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깊이 들이마시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뿐이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토록 가벼운 이유로, 동시에 전적인 이유로 운명이 시작된 것이다. (.....중략.....) 그는 그렇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남자가 되었다. 타인과 나 사이에 한 점 이물감도 없었던 경험은 그가 처음이었다. 어떤 조건이나 이상형 같은 건 아무 소용도 없었다. 순수하게 내 속에서부터 솟아 나온 삶과 사랑에 관한 명백한 직관으로서 나는 그를 받아들여 버렸다. 그 때부터 나의 꿈은 스물한 살에 만난 그 남자가 평생 동안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 또한 단 하나의 남자만을 사랑하며 평생 동안 같은 삶을 공유하는 것이었다.⁴⁵⁾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혼은 효경을 만나면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안식을 찾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피처로서 결혼을 선택한다.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와 고독을 내면화시킨 채 살다가 효경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자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당연히 결혼을 한 것이다. 특별히 효경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없다. 단지 어느 순간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고 받아들이면서 운명적인 사랑이라 믿게 되었을 뿐이다. ‘그토록 가벼운 이유로, 동시에 전적인 이유’로 ‘내 인생의 결정적인 남자’로 받아들이면서 ‘평생 동안 같은 삶을 공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한 동안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한다.

그러나 미혼이 남편의 사랑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생각만큼 길지 못했다. 여섯 살 난 아들 수가 좋아하는 케익을 만들고 있던 크리스마스에 남편의 내연녀가 찾아옴으로써 그들의 ‘평생 동안 하나의 생을 온통 함께 사는 것’을 ‘흡사 하나의 이념처럼 지킬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던 미혼의 행복은 한 순간에 깨져 버린다. 그녀가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남편의 사랑이 사실은 온전히 자기 몫이 아니었음을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미혼의 삶은 엉망으로 엉켜들게 된다.

“세상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사막에 사는 여

⁴⁵⁾ 전경린, 『내 생애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 문학동네, 1999, 184-185면.

자처럼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었어. 육십 도의 고열도, 육 년 동안의 가뭄도, 뜨거운 모래 바람도, 백 이십 일간의 부재도, 삶 자체의 남루함과 처참함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하는 사랑이 박탈된 거야. 넌 단지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라 내 생을 빼앗아 버렸어.....(중략).....난 이제 절대로 예전처럼 될 수 없어.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너를 다시 사랑할 수 없어. 삶이 참을 수 없이 하찮아. 사람이 왜 허무해지는지 아니? 삶이 하찮기 때문이야. 마음을 누를 극진한 게 없기 때문에.....”⁴⁶⁾

미혼은 효경을 만나 사랑에 모든 것을 걸고 결혼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의학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지독한 두통에 시달리며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 전업주부이던 미혼에게 있어 남편은 현실적으로 안식처이며 자아의 연장이기도 한 동시에 삶의 근간이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를 아는 순간 극복할 수 없는 공황상태에 빠져든다. 그러면서도 미혼은 남편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지 못한다.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남편이란 정치, 경제, 문화, 정신과 정서 그 모든 것의 주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부장적 질서는 왜곡된 여성상을 고착화함으로써 순응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을 ‘여성다움’으로 미화시켜왔다. 주체성을 거세시키고,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연하는 ‘타자 지향적’인 인간형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따라서 가부장제의 요구에 부합되는 여성일수록 남편에게는 의존적이다.

효경을 떠나보내기는커녕 금치산자처럼 그에게 더 의지했었다. 내가 늘 아프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그가 한 순간도 잊지 못하도록 폐부 깊숙이 인식시켰다. 나는 어쩌면 원한을 가지고 커다란 벌레처럼 그의 머릿속에 드러누워 그의 생을 갉아 먹었는지도 모른다.⁴⁷⁾

여리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표현했다. 나는 유순하고 조용했고 어릴 때부터 청결했고 사람들이 여리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야릇한 연약함이 있었다.⁴⁸⁾

46) 위의 책, 54-55면.

47) 위의 책, 95면.

48) 위의 책, 25면.

위의 두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미혼은 매우 의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존성은 외도에 있어서도 쉽게 열정에 휩싸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랑이 아니더라도 직장일이라든지 명예, 사회봉사, 또는 기능이나 지식을 획득하는 일 등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따라서 사랑을 잃더라도 사랑 외의 요소에 더 집중함으로써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혼의 경우, 남편 외에는 그 무엇도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을 대신해줄 만한 또 다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미혼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감당하는 방법은 또 하나의 외도였다. 전형적인 ‘우발형 외도’인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실과 고독,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반발심이 미혼이 외도를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만 미혼의 성향, 즉 의존적이고 비독립적 자아감도 쉽게 외도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남편 효경과 사랑에 빠질 때도 그의 매력이나 그와의 연애 또는 결혼에 대한 비전을 진단해 보기보다는 막연히 그의 냄새가 좋다는 이유 하나로 무작정 마음을 열었고, 효경의 권유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간 뒤 이웃으로 만난 규와 외도를 하면서도 대상에 대한 진지한 탐구는 없다.

기든스에 따르면 ‘친밀성’이란 타자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의 특성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열정적 사랑은 사회적 질서와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위험한 것이 된다. 남편에게는 물론 아들에게도 소홀하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한 열정적 사랑의 예는 작품 속에서 부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여성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부희는 미혼이 이사를 한 시골 마을의 빈집에 살았던 여자다. 열아홉에 미혼모가 되면서 열서너 살이나 많은 노총각과 결혼을 해 마을로 들어왔는데 유난히 피부가 희고 갈갈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는 여자로 묘사된다. 대체로 화장을 하지 않고 몸빼차림으로 다녔지만 어찌다 아이들 학교에라도 갈 일이 있어 살짝 화장이라도 할라치면 마을 남자들의 눈길을 한 번에 끌만큼 도발적이었다. 그런데 농사꾼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착한 며느리로 살고 있던 어느 날, 부희는 간부(姦婦)와 함께 시아버지를 낫

으로 찍어 죽이는 사건을 벌이게 된다.

여고생이던 시절 식당을 하는 부희네 집에서 밥을 대어먹던 대학생이 부희가 낳은 첫 아이의 아버지이자 나중에 함께 살인을 저지르는 간부였다. 부희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어느 날 잠적해 버렸던 그 남자는 면사무소 계장이 되어 다시 나타나 두 사람은 재회를 한다.

아이를 갖게 하고 도망친 대학생을 십 오년 만에 시장 거리에서 툇 만나게 됐던 거예요. 부희가 그 남자를 미친 듯이 좋아했던가 봐요. 그날부터 거의 일곱 달 동안 둘이 발정 난 개처럼 쏘다니며 안고 뒹굴었대요. 여관이고 산이고 차 안에서고, 남자 집 마누라가 친정 간 날엔 그 집 안방에서도 잤다는 걸 보면... 그러다 급기야는 자기 집 안방에까지 불러들인 거지만.”⁴⁹⁾

이렇듯 부희와 그녀의 간부는 상식을 초월한 사랑을 한다. 열아홉에 첫 사랑을 한 소녀가 위험하고 무모한 외도 행각을 벌이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통상적 책무를 무시’하게 하고 ‘일상생활과 구별될 뿐 아니라 그것과 갈등하기도 하는 어떤 급박함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른바, 열정적인 사랑에 몰입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앤소니 기든스가 말하는 열정적 사랑의 맹점 즉, ‘인간관계라는 면에서 파괴적’이고 ‘개인들을 현세에서 뽑아 올려 희생뿐 아니라 극단적 선택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열정적 사랑의 극단을 보여준다.⁵⁰⁾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의식마저도 없었다. 이들의 세계에는 유일하게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난 그를 사랑했다. 그런 사랑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겠는가, 그날 시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낮에 찢려 죽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늘 무서웠지만 나는 사랑을 그만두지 않았다. 나에게 남자는 당신들이 간부라 부르는 내 아들의 아버지뿐이다. 그러니 아는 절대로 당신들이 말하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다.”⁵¹⁾

49) 위의 책, 62면.

50)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76면.

51) 전경린, 앞의 책, 64면.

부회는 간부와 함께 사형을 언도받는다. 이들의 죄는 어쩌면 불륜이나 존속 살해보다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게 아닐까.

그런데 미혼이나 부회의 이러한 열정적인 사랑에 비해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의 외도는 지극히 이성적이다. 가정의 울타리는 견고하게 지키면서 지루한 일상을 외도의 신선함으로 이겨내려는 것이 효경과 규가 외도를 하는 목적이다. 게다가 외도에 대한 기준을 남녀에게 달리 적용한다. 특히 효경은 성에 대해 철저히 이중적인 규범을 가진 인물이다. 외도를 하면서 아내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다.

“몇 번이나 말해야 돼? 그건 그냥 우발적인 사고 같은 거였어. 그 때 난 일하느라 지쳤었고, 사실 일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어.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잠시 방심한 사이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었던 거야. 그 정도 일로 왜 죽을 듯이 엄살을 부리는 거야?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⁵²⁾

효경에게 있어 남자의 외도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여자의 외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된다. 일상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다른 여성과의 외도로 일탈을 즐기는 것은 남자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효경은 이중적 성규범의 전형적 인물로서 사랑과 성은 분리될 수 있고 결혼과도 분리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성이 사랑의 영역인 가정에만 갇혀 있는 반면 남성은 성기 중심의 성문화 속에서 자유롭게 성을 탐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남성의 이중적 가치관 때문일 것이다.

미혼을 외도의 길로 이끌어가는 규 역시 사랑과 성을 분리하고 결혼과도 분리한다. 유혹의 손길을 보내오는 규에게 미혼이 이유를 묻자 ‘우선은 사는 게 지리멸렬하고, 그리고 당신이 마음에 들고... 그러나 사랑한다는 따위의 귀찮은 결과가 생기는 건 질색’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벌어 먹이느라 늙고 지쳐가는 소시민적 삶보다는 수상쩍고 고독하고 흥가분한 단독자의 삶을 택’한다고 말한다. 사랑에 대해서도 여성에 대해서도 지극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⁵²⁾ 위의 책, 55면.

“엎히는 게 귀찮으니까. 사랑은 언제나 사랑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생에 시비를 겁니다. 삶은 위험해요. 특히 여자들이란 사랑을 가지고 한몫 보려고 합니다. 팔자라도 바꾸려고 들죠. 사랑한다면서 왜 저렇게 하지 않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요. 이런 걸 사줘요. 왜 전화하지 않았죠? 내가 보고 싶지 않았나요?.....(중략).....여자들 그러는 거 아주 지긋지긋합니다.”⁵³⁾

그렇게 사랑에 대해 냉소적인 인물이 미혼과의 외도를 위험하게 몰아간 것은 이율배반적이지만 규가 외도를 하게 되는 동기 역시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이 지루하기 때문이었다. 규는 늘 새로운 일탈을 위해 수시로 여자를 바꿔가며 외도를 했다. 미혼 이전에도 많은 여자가 있었고 미혼과의 만남을 잠시 끊었을 때도 다른 여자와의 외도를 즐긴다. 그야말로 유희·습관성 회도의 전형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에 등장하는 남성, 효경과 규가 외도를 하게 되는 동기는 일상에서의 탈출일 뿐 가정이나 아내를 버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양유성의 외도유형 중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일부일처제의 결혼을 했으며, 개인적으로는 일부일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도의 대상에게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미혼과 부회가 외도를 하게 되는 동기는, 남편에 대한 보복과 아울러 열정적 사랑에 대한 기대이다. 세상의 전부를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되는 위험한 사랑을 추구한다. 그러기에 남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족에 대한 의무도 소홀하게 되며 살인마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나. 외도의 진행과정

사랑은 유토피아이다. 그러나 위로부터 또는 문화적 전통이나 설교로부터 설계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성적 충동의 힘과 지속성으로부터 그리고 개인의 깊은 소망으로부터 자라나는 유토피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은 외적 의미와 전통에 방해받지 않는 종교이다. 그 가치가 연인들이 서로에게 깊이 이끌리고 주관적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데 있

⁵³⁾ 위의 책, 84-85면.

는, 그리고 아무도 신도가 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개종할 필요가 없는 종교 말이다.⁵⁴⁾

현대인에게 있어 사랑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잘 말해주는 인용문이다. 결혼에 있어 필수 요건이 된 사랑이 열정을 잃게 되면 결혼 외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이를 실현해 가는 현상 즉, 외도가 만연하고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도 사랑에 대한 맹목적 추구 때문일 것이다.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에서 미혼이 벌이고 있는 외도 행각은 단순히 외도의 차원을 넘어선다. 외도를 하게 되는 동기는 남편의 배신에 대한 보복이라 할 수 있지만 규를 만나면서 그와의 연애를 펼쳐가는 과정은 가히 종교적이라 할만하다. 마을 사람들의 이목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 속이나 바닷가, 마을을 오가는 길목, 모텔, 심지어 규의 집과 미혼의 친정 근처까지 찾아다니며 그들은 열정을 불태운다. 그러다 결국 그들이 든 모텔 앞에서 남편 효경에 의해 발각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미혼이 요양을 이유로 이사를 간 시골마을은 전에 나비라는 지명을 가진 적이 있는 곳이다. 소설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나비의 이미지는 크게 부각되고 서사의 전반을 이끌어간다.

“.....이카루스에게 태양에 너무 다가가지 말라는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있었던 것처럼 나비에게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우선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몸이 뜨거워야 됩니다. 삼십도 이상의 체온을 유지해야 하죠. 나비의 배 쪽엔 비늘 가루가 변한 털이 빼곡이 덮여 있는데 그곳에 최대한 햇빛을 쬌어 그 복사열로 체온을 올린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만 날고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은 비상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체온을 높일 수 없으니까요.....(중략).....그런데 그 몸으로 바다를 건너가다니, 비상하네요.”.....(중략).....나비가 불 속으로 날아드는 것도 체온에 대한 욕망, 바로 비상에 대한 욕망 때문일까.⁵⁵⁾

‘체온에 대한 욕망’으로 불 속으로 날아들기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과감한 섹슈얼리티로 표현된다. 그들이 외도를 시작할 무렵, 규가 미혼을 바닷가로 데리고 가 물속에 빠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54) 올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 앞의 책, 303면.

55) 전경린, 앞의 책, 77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미혼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겨우 발을 딛고 서자 규는 ‘사람들은 옷을 입은 채로는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 하지만 옷을 입은 채 바닷물에 빠지는 것도 인생’이라고 말한다. 옷을 말리는 일 따위는 간단하니까 마음 속에 금지를 가지지 말라는 한 마디 말에 미혼은 그를 받아들이고 만다. ‘제도의 온실 속에 복무하기보다는 차라리 남몰래 나빠지고 싶어하는’ 여자가 되기로 하는 것이다. 이후 그들은 거의 매일 국도변 휴게소에서 모닝커피를 함께 마신다. 미혼이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데리고 오는 틈틈이, 그리고 마을의 우체국장인 규가 업무를 보는 사이사이 그들은 도처를 돌아다니며 정사를 나눈다. 미혼이 외도에 이르게 되는 동기는 남편의 배신에 대한 앙갚음이었고 상실감의 극복이었지만 규와의 만남이 진행될수록 남편의 배신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섹슈얼리티에 몰입해간다.

“옳지 않다 해도 어쩔 수 없어. 아무 것도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 문제는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뿐이야. 다른 건 몰라도 말이야. 사랑만은 교훈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중략).....실존적으로 하는 거지.....(중략).....내가 아직 너무 젊다는 걸 느껴”⁵⁶⁾

내 몸은 변했다. 나 자신마저도 낯설어 깜짝 놀라는 위험한 관능이 그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그건 참으로 낯설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불안한 것이었다. 생을 가장 어둡고 질척한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동물적인 몰입. 이것은 평범한 여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선물일까, 혹은 극복해야 할 재앙일까.⁵⁷⁾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었다. 남편이 아닌 남자와 육체관계를 가진다는 것.....(중략).....그러나 생은 그 모든 것을 태연하게 꿀꺽 삼킨다. 혼돈과 불안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혼적과 그토록 선명하고 충격적이던 생경한 육체의 감각까지도.....(중략).....육체의 포용력에 조용히 경악했다.⁵⁸⁾

56) 위의 책, 101면.

57) 위의 책, 146면.

58) 위의 책, 132면.

위의 인용문들은 미혼이 규를 만나러 다니면서 정신적인 위로와 더불어 몸에 대해 발견해가는 과정을 잘 드러내준다. 미혼은 규와의 정사를 통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당황해한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보다는 규와의 열정적인 사랑에서 오는 희열이 더 큰 삶. 비로소 미혼은 남편의 아내이거나 아이의 엄마로서만 존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간다. 가족이나 이웃, 친구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어 오로지 자신의 사랑과 몸에 몰입해간다. ‘유체이탈 된 영혼처럼’, ‘몸의 안팎을 드나들며’, ‘처음으로 머리끝까지 피가 운반되는 신선한 생기’를 느끼면서 자기 자신과 화합해 간다. ‘그의 존재가 너무나 절박해서 그 육체에 매달려 절대로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해가 지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지나도 모텔을 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앤소니 기든스가 말하는 열정적인 사랑의 특징 즉, ‘감정적인 연루가 너무 강해 자기의 통상적 책무를 잊게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미혼은 규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도 완벽하게 행복해지지 못한다. 그와의 열정적인 정사가 이어질수록 ‘선물’인지 ‘재앙’인지 혼란스러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 효경은 여직원과 외도를 하고 그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지우게도 했지만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 아내에게도 내연녀에게도 일말의 가책도 없이 ‘자연스러운 일’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우연한 사고일 뿐’이라는 해명이었다. 미혼의 외도는 남편에게서 기인한 것이지만 죄의식을 동반하고, 효경의 외도는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었지만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 이는 우리사회가 그만큼 남성에게는 허용적이고 여성에게는 억압적인 이중규범을 적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여성의 성욕 자체가 금기시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고 기혼녀의 성욕은 더더욱 부정한 것으로 치부되면서 여성은 스스로 성욕을 통제해왔다. 여성의 성욕이 역사적으로 통제당해 오면서 교육된 결과다. 미혼 또한 이러한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공포를 갖는다.

나는 여전히 그를 끌어안고 있었다. 나의 금지를, 나의 부정을, 내게 허용되지 못한 것을, 나의 공포를.⁵⁹⁾

⁵⁹⁾ 위의 책, 154면.

욕망에 빠져드는 일이 이렇게 슬프고 무서운 일인가....동그란 두 눈 속에 아무 기억도 없는 새들처럼 가볍게, 저 광란의 바람 속에서 다른 가지로 무사히 옮겨 앉을 수는 없을까⁶⁰⁾

이러한 두려움은 대중목욕탕에서 소녀들의 몸을 보면서 여성의 몸에 행해지는 강제와 구속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에피소드에서 극대화된다. 튜브형 세안제를 들고 와 미혼에게 여는 법을 묻는 두 소녀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꼭 닫힌 봉오리처럼, 리본이 묶여진 선물상자처럼 달콤하고 푹푹하게 닫혀있는 육체’이며 아직 ‘봉인된 생’을 가진 소녀들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자로 성숙되어갈 것을 예감하면서 미혼은 눈물을 흘린다. 이는 미혼 자신이 규와의 관계에서 섹슈얼리티를 실현해가는 과정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검열에 끝없이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고 그 부당함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소녀들에게 튜브형 세안제를 열기 위해서는 칼로 자르는 방법밖에 없음을 단호히 말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또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의 실감이었을 것이다. 즉, 여성의 몸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신체의 의미를 넘어선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임을 자각하는 것이고 규와의 사랑이 제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규와의 무절제한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미혼은 친정에 간다.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다시 규를 만나기 위해 나가면서 미혼은 성장(盛裝)을 한다. 그러면서 어쩌면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친다. 미혼은 밀회의 장소로 가면서 지나치게 차려입은 자신을 어색해 한다. 규 역시 미혼의 ‘바람난 유부녀’같은 모습에 두 사람은 너무 멀리 와 버렸음을, 되돌아나가기엔 너무 무거운 관계임을 자각한다. 마치 ‘19세기 불륜’ 같다는 규의 말에 미혼은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은 일시적인 이별을 한다. 그러나 기든스가 분류한 대로 열정적 사랑은 이성도 합리도 없이 오로지 대상에게만 집중하는 관계이므로 그들은 곧 다시 재회를 하고 숲 속의 모텔에서 오후를 보낸다. 그러다 결국 미혼의 차를 발견한 남편에 의해 그들의 관계가 드러나고 만다.

남편에 의해 외도 사실이 발각되고 난 후의 이야기는 지극히 도식적이

⁶⁰⁾ 위의 책, 195면.

다. 남편이 성에 대해 이중규범을 가진 전형적인 인물인 만큼 미혼의 외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된다. 구타를 당하고 감금 상태로 지내던 미혼이 어느 순간 규에게로 달려가고 다시 열정적인 정사를 나눈 후에 함께 차를 타고 오던 중의 교통사고. 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은 소설의 틀 머리부터 예견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정적인 연애를 하고 섹슈얼리티에 충실한 여자가 이 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의 열정은 막을 내린다. 가정은 깨어지고, 미혼은 집을 나가게 되고, 효경은 나날이 궤궤해지고, 규는 장애인이 된다는 암시로 소설은 끝이 난다. 미혼이 집을 잃고 떠돌기는 해도 스스로 자아를 회복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는 것을 느끼며 세상을 향해 인사하’더라도 그녀의 생은 ‘살이 망가진 우산을 펴고 보이지 않는 먼 공중으로 아득히 날려가고 있’을 뿐이다. 미혼의 열정적이고 위험한 사랑은 결국, 그녀 자신은 물론 규와 효경, 아들 수까지 모두의 불행으로 종결된다.

부희의 외도 또한 마찬가지로 불행한 결말이 예견되어 있었다. 열아홉에 짝사랑한 대학생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열서너 살이나 더 많은 노총각에게 팔리다시피 결혼한 부희의 삶 역시, 철없던 시절의 열정으로 인해 극단의 불행으로 치닫는다. 아이 둘을 낳고 농사일을 하는 틈틈이 화원에서 꽃을 자르거나 목재소에서 상자 만드는 부업을 해가며 살던 그녀 앞에 첫사랑이었던 대학생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부희는 ‘갈갈거리는 웃음소리’를 내며 산 속 외딴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거리에서 우연히, 면사무소 계장으로 온 그 대학생을 만나버렸고 잊었던 열정이 되살아나면서 ‘통상적인 책무를 무시’하게 되고 남들의 이목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세상의 기준과 도덕률과도 괴리되어버린다. ‘발정 난 개처럼’ 안고 뒹굴던 그 열정의 시간이 결국은 목을 옥죄는 사슬이 되고, 겁 없이 남자를 안방으로까지 끌어들이는 패륜으로 치닫게 한 것이다. 기든스의 표현대로 ‘오로지 상대에 대한 몰입만이 전부’인 열정의 사랑은, 정사 장면을 목격한 시아버지를 낫으로 찌르게 하고 부희와 간부를 사형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은 부희가 살던 집 앞을 지나며 고개를 돌리거나 침을 뱉는다. 무절제한 열정의 대가이며 외도를 통해 열정적 사랑을 추구한 것에 대한 단죄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미혼과 부희가 열정의 대상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실현해가면

서 자아감이나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것은 모두를 불행으로 이끌었다. 주위의 정황이나 자신들의 좌표에 대한 성찰 없이 무절제하게 상대에게 함몰되어가는 관계 즉, 열정적 사랑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었다. 여성에게는 금기시되어온 섹슈얼리티를 통해 열정적 사랑을 실현해가는 것은 더욱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주된 줄거리인 동시에 작가가 하려는 말일 것이다.

다. 외도의 결과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에서 나비마을과 수몰지역, 그리고 부희의 빈집은 서사를 이끌어가는 기표들이다. 미혼이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 규를 만나는 것이 소설의 시작이며 외도의 시작이 되는데 마을 이름이 원래 나비마을이었다는 것은 중요한 메타포로 작용한다. 즉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몸을 데워야 하고 몸을 데우기 위해서는 때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비의 생리는 미혼, 또는 여성과 동일시된다. 즉, ‘나빠지더라도 비상을 꿈꿀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을 상징한다. ‘때로 여자가 스스로 불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해 누군가 규명’하거나 ‘혹은 규명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가부장적 질서의 억압에 대한 저항이고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혼의 맹목적인 사랑은 ‘나비의 비밀은 체온이 뜨거운 동안만 날 수 있’음의 인식이고 실천이라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가 된다. 여기에 곧 수몰되어버릴 지역과 빈집이라는 무화(無化)의 이미지는 나비의 어린 날갯짓이 아무리 고되더라도 여성문제에 있어서 사회적 인식이나 환경은 여전히 완고하다는 작가의 목소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혼의 열정적이고 위험한 사랑은 끝내 모든 것은 수몰시키고 비게 만드는 무모한 날갯짓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미혼은 앤소니 기든스의 표현대로 ‘가히 종교적이라 할 만큼 진지한 열의를 불러 일으키’는 열정을 실현하고 ‘희생 뿐 아니라 극단적 선택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랑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사랑으로 창출해 낸 것은 섹슈얼리티뿐이다. 물론 미혼이 규를 통해 남편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작가의 말처럼 ‘성

적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해방을 상징'하고 '여성이 생명력을 얻'거나 '자유를 알게'되는 것은 아니었다. 억압되고 좌악시 되어온 여성의 성욕을 표출한다 해서 그것이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미혼이 온 몸으로 항변하려 했던 것은, 남성중심 사회의 폭력성이었지만 소설 속에서는 개인적 체험으로만 환원되어버린다. 이는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이기보다는 개인의 섹슈얼리티와 열정의 사건으로만 축소됨으로써 견고한 남성중심의 벽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뿐이다.

미혼이 처음 규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 세상과의 소통을 다시 시작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가던 모습은, 열정을 실현해갈수록 자폐적 모습으로 변해간다. 이는 우선, 미혼의 개인적 성향이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단면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남편이나 규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자아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사랑의 대상으로부터의 지지가 아니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열정에 몰입하고 현실감을 잃고 상대에게 함몰되게 하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전업주부인 상태였기 때문에 외도 사실이 공개된 후에는 더욱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불행한 결말로 소설이 끝을 맺는 것은 남편의 배신에 대해 맞바람으로 대응하는 여성에 대한 단죄이기도 하다. 금기시되고 있던 여성의 성욕을 실현하고 외도를 통해 열정적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은 결국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의 통념인 것이다.

부희의 외도도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에 지나지 않는다. 부희가 살인자가 되기까지에는 남편의 폭력성(어린 나이에 임신했다는 것을 이유로 부희를 상품화하고 거래로서의 결혼을 한 결과)과 시아버지의 폭력(다른 씨앗을 잉태한 여자라 해서 구박하고 아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딸이라 해서 구박한 사실)이 작용한다. 여기에 어린 나이였지만 부희의 첫사랑을 인정해주고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남부끄러운 일로만 여기고 시골마을로 내쫓다시피 한 부모의 폭력도 가세한다. 그리고 시골마을에서의 편견도 부희의 고립감을 더욱 부추겼을 것이다. 결국 상품으로 거래되고 가족으로부터 냉대를 받으며 이웃사람들의 편견에 시달리던 부희로서는 첫사랑과의 재회가 존재감의 재발견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실성을 상실한 지나친 열정

과 상대에 대한 몰입이었다. 그리고 여성이 섹슈얼리티를 실현해 가는 것은 단죄의 대상이라는, 뚫을 수 없는 남성중심의 벽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요약하자면, 열정적인 사랑에만 몰입하는 것은 기든스의 지적대로 자폐적 성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의존적이고 현실대응능력이 희박한 미혼과 부회의 외도는 열정적 사랑의 위험에 지나치게 노출된다. 자기 존재감을 외도의 대상으로부터 확인함으로써 상대에게 함몰되어가는 외도는 열정적이지만 불행을 초래하기도 쉽다. 그리고 작가가 이 소설의 결말을 모두의 불행으로 끝맺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여성의 외도는 허용되지 못하는 가부장적 논리 때문일 것이다.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에서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외도를 통해, 사랑 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열정적 사랑으로 치닫다가 불행한 결말을 경험하게 되는 외도의 모티프를 살펴볼 수 있었다.

2. 낭만적 사랑형 외도

- 『결혼은 미친 짓이다』 -

이 소설은 물질화되고 상품화된 결혼문화 속에서 결혼의 상투성에 흡수되면서도 낭만적 사랑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연희라는 인물을 통해, 현실과 사랑의 환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잘 보여준다.

이 소설을 읽는 코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물신화된 우리 사회의 소비풍토 속에서 상투화되고 피상화 되어버린 삶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과 결혼의 이율배반에 관한 것이다. 성과 사랑, 그리고 결혼의 영역이 철저히 구분되는 기저를 욕망으로 파악하고 결혼의 상품화 경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면에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회귀성도 강해진다는 역설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즉, 결혼 시장에서 상품가치가 높은 사람을 선택해 결혼하되 그럴수록 인간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에 목말라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한 욕망의 주체는 남성이었으나 이 소설에서는 여성에 의해 그러한 욕망이 실천된다는 점

이다. 이제까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이른바 ‘두 집 살림’이 여성에 의해 펼쳐지고 남성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상황에 순응해 간다. 결혼에 있어서 기존의 성역할을 완벽하게 전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앤소니 기든스에 의하면 ‘낭만적 사랑’은 순수한 관계의 기원이 되는 사례로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영향을 끼쳐왔다. 남성들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낭만적 사랑의 에토스는 주로 여성적 입장에서 이야기된다. 그리고 열정적 사랑이 일상과 의무로부터의 단절을 속성으로 한다면, 낭만적 사랑은 자유와 자아실현을 결합시킨다. 즉, 낭만적 사랑은 열정적 사랑의 특징인 일시적 이상화(理想化)에 성찰적 요소가 더해져 자아 실현적 요소가 개입된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무한히 이상화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상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그러한 발견을 통해 자기존재감이 확인되고 부족한 그대로의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결여를 채워 준다. 열정적 사랑의 맹목과는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의미에서 낭만적 사랑은 불완전한 개인을 완전한 전체로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기든스의 주장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프랭크 피트먼의 분류 방식을 적용해 ‘낭만적 사랑형 외도’로 보는 것은 기든스가 말하는 낭만적 사랑의 성찰적 요소 때문이다. 즉, 현실적 욕망의 논리에 의해 결혼 시장에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내놓고 조건만으로 결혼을 했지만 외도를 통해서라도 낭만적 사랑과 자아의 정체성을 실현하려는 여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가. 외도의 동기

결혼적령기에 달한 연희는 결혼의 상업성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다. 자신이 가진 미모와 교양을 이용해 경제력이 확보된 신랑감을 만나 결혼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생각하고 그러한 결혼을 위해 노력한다. 친구의 소개로 준영을 만나는데 신랑감으로서의 상품가치가 없음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날 바로 동침을 한다. 이는 조심하게 보이는 신붓감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성과 사랑, 결혼을 철저히 구분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남성들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러한 구분이 이십대 후반의 커리어우먼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연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맞선을 보면서도 준영을 계속 만난다. 결혼할 조건에는 미흡하지만 연애를 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연희와 준영은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준영에게 이미 조신하고 음전한 신붓감이기를 포기한 연희는 동침을 할 때도 과감한 요구를 서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솔직함과 상통하는 의식으로 점점 끌리게 된다.

“문제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가 광고를 보고 나서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에게 필요한 거라면 자기가 먼저 알아야 하잖아. 그런데 광고가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 자기 욕망의 출발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광고라면 나란 뭐야? 결국 나 자신은 껌테기일 뿐인 거잖아?”

“광고도 문화야. 단지 필요성만으로 물건을 사는 시대는 지났어.”

“그래도 조깅을 하려고 백화점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야.”

“백화점에 조깅코스라도 생겼어?”형이 물었다.

“조깅하겠다고 그러더니, 운동화와 체육복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 와서는, 너무 비싸다고 세일기간 기다리는 중이래.”

“운동화, 체육복 다 있잖아.”

“아무리 빨리 달음박질을 쳐도 유행에 뒤떨어져 있어서 기분이 안 난대.”⁶¹⁾

위의 인용문은 준영이 여동생과 나누는 대화인데, 현대인을 통제하는 것은 감시나 상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망이고 그러한 물질과 소비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인간은 소비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 되어버렸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연희의 결혼관은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함축되어있다.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내놓으면서 미모와 교양에 맞는 교환가치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이다.

준영을 만날 때 연희는 자기표현을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맞선을 볼 때는 차림새부터 언행까지 적절한 신붓감으로 연출을 한다. 진정한 자아가 아닌 결혼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되기 위한 자기연출. 그것은 마치

61) 이만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민음사, 2000, 16면.

배역을 연기하는 것과도 같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구별점이 생기지 않아. 어딘가에는 반드시 나와 같은 상표의 옷, 똑같은 헤어스타일, 혹은 똑같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은 더 있을 거란 말이야.”

“아하, 이거랑 똑같은 재킷을 입은 남자, 방금 지나가는 거 나도 봤어.”⁶²⁾

“더구나 사람들은 거의 같은 취향을 저마다 반복해. 가령 똑같은 뉴스, 연속극과 유머 시리즈, 엇비슷한 카페와 음악, 베스트셀러와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들을 동시에 보고 있지. 애인을 갈아치워 봐도 다들 비슷비슷해서 다만 위치만 다른 체인점에 들어가 앉아 있는 기분이라구.”⁶³⁾

“어떤 회사 세탁기 광고 문구에 이런 구절이 있대. 자기만을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세탁기를 꿈꾸지 않는 주부가 있겠습니까?.....(중략).....사실 그것을 꿈꾸지 않는 주부가 있겠어?.....(중략).....그러나 만약 주부들이 그 세탁기를 구입하게 된다면, 수십만 명의 가정주부들은 똑같은 세탁기를 구입하는 꼴이 되는 거지.....(중략).....결국 그러한 소비과정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서로 닮아간다는 거야.”⁶⁴⁾

이 소설에서 작가는 소비자본주의 사회 특유의 패턴화 경향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한다.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란 고작해야 패턴화된 상품들이나 패턴화된 조합에 불과해진다.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처럼 채널을 돌릴 때마다 바뀌는 뻔한 배역이 바로 결혼과 가정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준영이 ‘구조적 모델화’를 운운하면서 유행이라는 게 사실은 개성화가 아니라 또 다른 획일화라는 지적을 하는데 그가 독신주의를 고집하고 결혼에 대해 시종일관 냉소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즉, 결혼이 초래하게 될 지루한 연기, 누구나 반복하고 있는 상투적인 배역에 대한 거부이며,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그에 비해 연희는 준영을 만나는 틈틈이 맞선을 보고 조신한 처녀로서의

62) 위의 책, 79-80면.

63) 위의 책, 90면.

64) 위의 책, 199-200면.

연기를 하다가 결국은 유능한 의사와 결혼을 한다. 준영처럼 패턴화된 결혼의 배역에 냉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침투해 소비자본주의가 주는 최상의 혜택을 결혼을 통해 누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연희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나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 살 남편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백화점에서 값싸게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한 전략을 짜는 듯하다. 선을 보고 물망에 올려놓은 다섯 명의 남자를 두고 누구와 결혼할지를 고민하는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연희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실히 전달된다.

“첫 번째는 의사 사모님이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겠지만 단조로운 생활에 시댁식구들의 높은 콧대를 견뎌야 하고 다소 못생긴 그의 외모에 정을 붙여야 하고.....(중략).....그 다음은 보잘 것 없는 셀러리맨의 아내지만 귀여운 연하의 남편과 살 수 있는 즐거움, 그러나 작은 키에 가난한 시댁.....(중략).....셀러리맨의 아내이긴 마찬가지지만 일류대 출신에다 도분양받아 놓은 아파트가 있고 웬만큼은 가정적일 것 같지만.....(중략).....마지막으로 너는, 무엇보다 솔직한 구석이 있고 시부모님도 착하신 것 같아.....(중략).....하지만 기약 없이 셋방살이를 해야 할 것 같고 여자관계가 복잡해 보여.”

그녀가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그 정말 복잡하군. 도대체 어떻게 대차대조표를 내야 하지?”⁶⁵⁾

그러나 연희의 고민은 오래 가지 않는다. 다섯 명의 남자 중에 의사를 선택해 곧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 해서 준영과의 관계를 청산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혼수 준비를 하면서 준영에게 조언을 구하고 함께 예복을 고르는 것도 모자라 미리 준비된 신혼집에 가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

준영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라고 저녁마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연희의 결혼 준비를 지켜만 볼 뿐 청혼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희는 결혼을 진행하면서도 준영에게 청혼의 의사를 묻곤 한다. 이는 준영의 독백처럼 청혼을 하더라도 결국은 조건이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연희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⁶⁵⁾ 위의 책, 169면.

못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지. 영원히 그녀만 사랑할 것 같은 낭만적 환상, 아니면 결혼을 하면 훨씬 안락한 삶을 누릴 것 같은 사회경제적 환상”. 그런데.....(중략).....“결혼에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지.”⁶⁶⁾

결국 연희는 준영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간직한 채 결혼을 한다. 준영이 참석한 결혼식장에서 행복한 신부 연기도 훌륭히 해낸다. 그리고 신혼의 분주함이 가라앉을 때쯤 준영의 자취방으로 찾아간다. 결혼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들, 즉 돈이나 남편의 지위에 맞는 사회적 위치 등을 손상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영과의 밀회를 즐긴다. 신혼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고 ‘행복한 신혼’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딱 알맞을 사진을 찍는가 하면 심지어 준영과 신혼여행까지 다녀온다. 평소에는 결혼이 주는 안락함을 누리다가 틈이 나면 준영에게로 와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연희가 외도를 하게 되는 동기는, 결혼으로 이룰 수 없는 낭만적 사랑을 외도를 통해 체험하기 위해서다. 처음부터 결혼시장에서 상품가치로 남편을 선택하고 자신 또한 같은 기준으로 선택당하면서 결혼으로부터는 어떤 기대도 환상도 없다. 그러한 삭막한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는 덜 상투화되고 선택의지가 개입된 낭만적 요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나. 외도의 진행과정

낭만적 사랑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냉소적인 인물은 최근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캐릭터이다. 이들은 수많은 물질적 기호와 상품들이 넘쳐흐르는 대중문화 속에서 사랑의 환상이 쉽게 변질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모든 문화의 코드는 사랑으로 통하고 온통 사랑을 전제한 상품으로 치장된 문화 현실 속에서 낭만적 사랑에 대한 의심과 부정은 오히려 자아의 보호장치가 되기도 한다.

⁶⁶⁾ 위의 책, 176면.

“.....그렇게 각자의 차이점이 고작 몇몇 유행의 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되는 것은 돈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제 구조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은 돈이니까, 같은 값이면 돈 많은 상대를 선택하지 않겠어?”⁶⁷⁾

인용문이 보여주듯 철저히 물신화되고 현실적인 연희는 준영을 만나는 틈틈이 맞선을 보고 눈 밑의 사마귀가 거슬리기는 하지만 의사 사모님이 될 수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 그와 동시에 준영의 자취방에서도 또 하나의 신혼살림을 한다. 미모와 교양을 이용해 최대의 가치를 획득한 결혼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결혼으로 인한 결핍을 충족시켜줄 낭만적 사랑도 필요해진 것이다. 연희가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그토록 철저히 대차대조표를 짜고 현실적 가치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준영이 존재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열두 살부터 끊임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해왔어. 그런데 그 감성과 그 감각이 결혼으로 땡, 하고 끝난다는 건, 웃기는 소리지”⁶⁸⁾

이렇듯 사랑의 문화적 기호가 퍼뜨려 놓은 이미지들 속에서 자란 연희는 결혼으로부터 낭만적 사랑을 실현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외도를 시작한다. 아니 어쩌면 준영과의 외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준영 역시 연희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언질에도 불구하고 끝내 청혼의 뜻을 비치지 않은 채로 그녀의 결혼을 지켜본다. ‘사랑은 세상에서 신축성이 제일 뛰어난 고무줄일 뿐’이라는 자조적이고도 위악적인 관념으로 독신을 주장하지만 이는 결혼 시장에서 그다지 상품성을 갖지 못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방어 전략일 뿐이다.

“날이 갈수록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아. 그냥 언젠가 네가 한

67) 위의 책, 93면.

68) 위의 책, 111면.

말처럼 두 개의 드라마에 겹치기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뿐이야. 그래서 남들보다 약간 바쁘게 살아가는 듯한 느낌뿐이야.”⁶⁹⁾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연희가 의사와 결혼을 하고 나서 준영을 찾아가 본격적인 외도를 벌이는 과정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준영의 자취방을 신혼집으로 꾸미면서 현실적 안락함이 보장되는 결혼과는 다르게,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웬 놈의 발땀개가 내 손수건보다 더 예쁜’집을 꾸며놓고 ‘캥거루 가족이 깡충깡충 뛰어가다 말고 고개를 돌려 웃고 있는 그림이 있는 앞치마’를 입고 ‘싱크대 앞으로 가서 한 손에 냄비 뚜껑을 다른 손엔 국자를 든 채, 약간 부끄러움을 타는 표정’을 연출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준영은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만 한다. 연희는 촛불과 와인을 차려놓고 바흐의 음악을 단정하게 깔아놓거나 착한 신랑에게 시를 읽어주거나 ‘저녁상을 차리면서 자기가 오나, 안 오나 내다 보’거나 ‘신랑이 가끔은 뒷집 담 너머로 돌아와서 어흥, 하고 놀래켜 주’기를 바라는 외도 행각을 계속한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너무나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다. 콩나물 비빔밥을 먹느냐, 라면을 먹느냐 하는 사소한 다툼이 있고 난 후에 그들은 결국 끝을 예감한다.

“.....적어도 이것 하나만은 너도 인정해야 해.....(중략).....네가 나에게 그 길(청혼)을 보여주지 않은 한, 네가 보여줬더라도 내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까지를, 네가 단언할 수 없다는 것 말이야.”⁷⁰⁾

연희는 비로소 자기 성찰의 단계에 접어든다. 앤소니 기든스가 말하는 ‘느닷없이 단절시켜 버리는 열정적 사랑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개인들을 더 넓은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떼어내는’ 낭만적 사랑의 성찰성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자아감이 낭만적 사랑의 대상에게로 옮겨가 확장되면서 서로의 결여를 상호 보완해 주려는 작용이 일어난다.

.....낭만적 사랑 자체가 어떤 정신적 커뮤니케이션 즉, 부족한 부분을

⁶⁹⁾ 위의 책, 271면.

⁷⁰⁾ 위의 책, 202-203면.

메꿔주는 성격을 띠는 영혼의 만남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낭만적 사랑에 빠진 개인에게 그 사랑의 대상인 타자는, 단지 그가 딴 사람 아닌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결여를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 결여가 예전부터 인식되고 있던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던 그런 것일 수조차 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여가 직접적으로 자기정체성과 관련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낭만적 사랑은 불완전한 개인을 완전한 전체로 만들어 주는 어떤 것이다.⁷¹⁾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던 연희의 외도가 끝이 나는 이유는 그들 관계의 모순을 인식하는 순간, 독신인 준영의 고독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준영의 독백처럼 결혼제도 속에 위장된 낭만적 사랑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매순간 준영은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물상화된 결혼이든 위장된 낭만이든 ‘두 개의 드라마에 겹치기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헤어지게 된다. 아무리 모든 것이 이미지화되고 상투적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결혼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낭만적 사랑을 외도를 통해 실현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지를 알게 되면서 비로소 그들의 사랑은 끝난다.

“우리 역시 두 개의 길을 모두 가볼 수는 없는 거였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건 사랑 없이 의사와 결혼한 것보다 훨씬 더 치사한, 두 개의 길을 다 가보려는 욕심에 불과해.”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못질을 했다.

“이제 끝내야 할 때야.”⁷²⁾

요약하자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과 자본의 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의 상투성을 알아버린 연희라는 여성이 결혼 시장에서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준영이라는 남성을 만나 외도를 한다. 연희는 혼전부터 연인이던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결혼으로 이루지 못하는 낭만적 사랑을 외도로 실현해 간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게 주말부부로 보일만큼 깊이

71)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86-87면.

72) 이만교, 앞의 책, 273-274면.

진행되던 외도는 관점을 자신에게서 상대에게로 돌리게 되면서 끝이 난다. 연희라는 인물이 외도를 통해 체험해 가던 낭만적 사랑은, 사랑 자체의 성찰적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의 상처를 알아보게 한 것이다.

다. 외도의 결과

역사상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넘어오면서 가부장적 혈통주의가 성립되었고 가부장의 적자(嫡子)생산은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그로 인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의 정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전통적 관념은 배우자에게 철저히 국한되는 배타적 성교를 여성에게 강요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배타적 성교는 여성의 덕목일 뿐, 남성에게는 축첩이나 매춘 등 공식적, 비공식적 여러 방향의 성이 주어졌다.⁷³⁾

결혼의 이데올로기 중심에는 이러한 성으로부터의 불평등을 비롯해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억압이 자리 잡고 있다. 제클린 살스비의 주장대로 지금까지 ‘문학 정전’으로 읽어온 로맨틱 서사는 대부분 낭만적 사랑을 지나치게 미화함으로써 여성의 희생을 부추기고 정당화시켜왔다. 그 결과 낭만적 사랑과 결혼이 곧 행복이라는 등식을 지속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고착해왔다. 그러나 현대 산업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는 여성을 사적 영역에서 해방시켜 사회 중심부로의 진입시켰고, 그로 인해 명백히 불평등한 젠더의 개념 위에 세워진 가부장적 결혼이데올로기는 빠르게 와해되어간다. 이에 성 개방 풍조가 가세해 성 역할이나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소비사회를 상징하는 각종 기호들과 물신화된 욕망은 ‘낭만적 사랑’의 가면을 쓰고 문화 전반에 등장한다. 소비의 욕망과 더불어 물질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이 상품화되는 풍토를 배경으로 이 시대의 사랑은, 결혼과 성, 그리고 사랑이 분리되는 현상과 함께 결혼시장에 스스로를 상품으로 내놓는 추세에까지 이르렀다. 그로 인해 상품화되고 상투화된 결혼의 이면에는 그래서 낭만적 사랑에로의 회귀를 꿈꾸는 빈번한 외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⁷³⁾ 프리드리히 엥겔스, 김대웅 역, 『가족, 사적소유, 국가의 기원』, 아침출판, 1991, 83-88면 참조.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 다루어지는 외도는, 낭만적 사랑으로 회귀하려는 유형에 해당한다. 이 소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낭만적 사랑은 가부장제의 음모로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기든스가 말하는 사랑의 열정에 성찰성과 자아정체성이 결합된 형태의 사랑을 의미한다.

연희가 준영의 자취방을 또 하나의 신혼집처럼 차려놓고 주말부부 행세를 하는 동안 준영은 줄곧 방관의 자세를 취한다. 연희가 신혼살림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그들의 행동반경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기록할 때도 준영은 수동적이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착한 신랑처럼 욕실로 들어가 오리 모양의 욕실 슬리퍼를 신고, 미키마우스 모양의 칫솔꽂이용 컵에서 칫솔을 꺼내 이를 닦았다. 그리곤 거울을 보고 히죽 웃어보았다.⁷⁴⁾

함께 저녁을 해먹고 새침한 새댁 흥내를 내며 연희가 준영을 욕실로 내몰자 준영이 욕실 거울 앞에서 ‘히죽 웃어 보’는 이 장면은 행복한 신혼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모의 결혼생활을 하는 준영의 입장에서는 연희의 표현대로 결코 ‘달콤한 신혼’이 아니다.

준영은 그러한 연희의 ‘두 집 살림’에 완벽하게 몰입되지 못한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성숙한 사회일수록 성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내면의 도덕률로부터 늘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은 연희 역시 마찬가지다. 소설의 말미에 가서는 결코 다룰 일도 아닌 일로 침예하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외도 행각의 모순을 깨닫게 된다. 결혼의 이면에 위장된 낭만적 사랑이라 해서 ‘다만 채널을 돌려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연희는 그러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직시하고 자신의 외도로 인한 준영의 고독과 상처를 알게 된다. 그리고는 그들의 신혼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앨범을 남긴 채 준영을 떠난다.

사진 속에서만큼은, 그녀도 나도 한 없이 행복해 보인다. 약간의 부끄

⁷⁴⁾ 이만교, 앞의 책, 248면.

러움, 수줍음, 순간순간을 행복에 겨워하는 눈빛이 그 속에 보관되어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닫는다. 사진 속의 삶은 그녀가 가보고 싶어 했던 또 하나의 길이라기보다는, 그녀와 내가 갔어야 했던 길임을. 그러나 우리에게겐 그 길을 갈 용기가 없었다.⁷⁵⁾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연희가 떠난 후 혼자 남은 준영은 그녀와의 시간을 반추하면서 결혼이나 사랑에 냉소적이던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고 사랑은 생각보다 가볍지도 무의미하지도 않다는 자각을 한다.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형태로 외도를 하던 연희가 자신이 선택한 방법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기든스가 말하는 낭만적 사랑의 성찰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의 아픔을 느끼는 순간, 연희 역시 ‘지배 체제의 타락’만큼 자신의 외도가 ‘무너진 도덕률’에 의거해 있고 그로 인해 준영의 고통이 전달되는 것이다. ‘두 개의 드라마에 겹치기 출연’ 하듯 ‘조금 바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연희는 결혼 전부터 이어지던 외도를 끝낸다.

벨이 울린다. 그녀일지 모른다. 수화기에 손을 올려놓은 채 나는 망설인다. 벨은 끊겼다가 다시 운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나는 상관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만 선택해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⁷⁶⁾

위의 인용문은 소설의 마지막 문단이다. 준영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연희는 격주로 다녀가고 아직도 연희의 외도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암시로 소설은 끝난다. 아마도 연희는 결혼에서 오는 압박이나 일상이 지루해질 때 준영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시작이 그랬듯이 불쑥 나타나 정사를 나누고 또 다시 외도를 이어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든스의 지적대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연인만의 고유성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를 성찰하고 ‘불완전한 개체를 완전한 개인으로 만들어 주는’ 낭만적 사랑으로 인해 물화되어버린 자아감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외도는, 자기 자신을 현실적 교환가치로 환산해 조건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한 여성이, 결혼 전부터 연인이던 남자와

75) 위의 책, 277면.

76) 위의 책, 280면.

연애를 계속함으로써 결혼에서의 결핍을 충족해 간다. 남편과 연인 사이에서 ‘두 집 살림’을 주도해 가던 연희가 문득, 자신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준영을 들여다보게 되고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며 외도를 멈추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에서 드러나는 무모한 열정적 사랑과는 달리 자기성찰의 경지에 이르면서 스스로 자제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소설이 보여주는 외도의 모티프이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될 만한 것은 기혼자의 두 집 살림이 이제 여성에 의해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무능한 시간강사이자 대학원생인 남성이 미모를 이용해 경제력과 지위를 확보한 여성에게 결혼의 대리물로 전략해가는 모습은 이전의 풍속도와 그 폭을 달리한다. 결혼의 결핍을 충족하려는 기혼녀의 외도에 기꺼이 동참하는 남성의 모습과 그에 대한 죄의식 없이 외도를 통해 남편에게서 충족되지 못하는 낭만적 사랑을 실현해가는 여성의 모습도 이 시대의 외도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부부 양해형 외도

- 『아내가 결혼했다』 -

앤소니 기든스가 말하는 순수한 관계 지향성은, 기존의 관습적 인간관계를 벗어남과 동시에 성적, 감정적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성차별적 권력 형태는 와해되고 친밀성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전면적으로 민주화되면서, 정서적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⁷⁷⁾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는 기든스의 그러한 예상에 부합되는 작품으로서 결혼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전복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 결혼한 아내가 또 한 번의 결혼을 한다는 ‘중혼’의 모티프가 소설의 중심이 된다. 일부일처제의 배타성에 관한 회의적 관점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분량의 반은 중혼을 감행하는 아내를 만류하는 일이고 나머

⁷⁷⁾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27-28면 참조.

지 받은 중혼한 아내와 그 상황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중혼은 결혼식을 한 번 더 올리고 남편에게 또 다른 남편을 공개한다는 것 뿐, 앞에서 본 소설 『결혼은 미친 짓이다』의 두 집 살림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외도의 모티프에 피트먼의 분류방식을 적용하면 명백히 ‘부부 양해형 외도’가 된다. 외도란 불륜 또는 간통이란 말과 등가인 만큼 배우자를 속이는 일이고 범죄가 되는 것이 실상이지만 배우자의 묵인 또는 양해 하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기든스가 말하는 ‘합류적 사랑’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합류적 사랑은 낭만적 사랑과는 달리, 반드시 일부일처제적-그것이 성적 배타성을 의미한다면-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상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순수한 관계를 지탱해주는 것은, 파트너 각자가 관계에서 얻는 혜택이 관계의 지속을 가치롭게 만들 만큼 충분히 크다는 데 대한 당사자 모두의 인정이다. 이런 관계에서 성적 배타성의 역할은, 파트너 서로가 그것을 얼마만큼 바라고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라지게 된다.⁷⁸⁾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합류적 사랑이 추구하는 바는, 배타성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혜택이 관계의 지속을 가치롭게 만드는 것’ 즉, 대상과의 친밀도이다. 이 소설에서 덕훈이 다른 남자와 또 한 번 결혼을 하겠다는 아내와 이혼하지 못하는 것은 친밀성 즉, 사랑하기 때문이다. 비록 새 남편과 아내를 공유하더라도 아내 곁에 머무는 것이 그녀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판단 하에 아내의 중혼을 ‘양해’하게 되는 것이다.

전형적인 ‘부부 양해형 외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에서 외도를 하게 되는 동기부터 살펴가기로 하겠다.

⁷⁸⁾ 위의 책, 110면.

가. 외도의 동기

대학에서는 사학을 전공하고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인아는 자유분방한 연애관을 가진 인물이다. 동료들과 어울리는 술자리를 좋아하고 남자와의 잠자리도 쉽게 생각한다. 순결 또는 정절이데올로기에 구애됨이 전혀 없다. 기존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덕훈과 연애 상태에 있다 해서 정조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나는 우리가 애인 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녀 역시 우리가 애인 사이라고는 생각했던 것 같다. 다른 점이라면 다만 그녀는 애인 사이가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⁷⁹⁾

“아니 그럼, 툭 까놓고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겠다는 애긴가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의도한 바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의도와는 무관하게? 별로 관심이 가는 남자는 아니지만 술자리에서 끝까지 남는 남자가 있다면, 때마침 남자하고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같이 자겠다는 애기인가.....(중략).....

“마찬가지로 덕훈씨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난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⁸⁰⁾

이러한 인아의 정조관념은 철저히 독신을 주장하게 된다. 결혼이 갖는 사회적, 성적 배타성에 얽매이기 싫기 때문이다. 인아의 독신주의는 그러나 이기적이지는 않다. 혼자 살면 ‘내 한 몸만 건사’ 하면 되고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인생까지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독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비독점적 다자간의 연애를 하기 위한 독신주의일 뿐, 남성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다.

덕훈은 결혼을 함으로써 그녀의 분방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로 청

⁷⁹⁾ 박현옥, 『아내가 결혼했다』, 문이당, 2006, 28면.

⁸⁰⁾ 위의 책, 30면.

혼을 한다. 그녀의 모든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것과 그녀의 비독점적 다자간 연애 방식을 무조건 존중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 인아는 청혼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결혼을 함으로써 인아의 몸가짐이 조신해질 것이라는 것은 덕훈의 오해였다. 가끔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외도의 기미가 보여도 덕훈은 묵인할 수밖에 없다. 결혼 전의 약속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잤다고 말한다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내를 두들겨 펠 것도 아니고 헤어질 것도 아니다. 그저 나만 괴로울 뿐이다. 그래도 외박 안하는 게 어딘데.

나는 아내를 믿지 않는다. 결혼 전 나와 연애하면서도 그녀는 틈틈이 다른 남자들과 같이 잤을 것이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모른다.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잤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점에 관한 한 나는 아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와 결혼생활과는 또 별개의 문제다.⁸¹⁾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덕훈은 결혼 후, 자신의 혼전 서약처럼 ‘쿨한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인아를 만나 결혼하면서 여성의 정조나 연애편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인아는 신혼을 행복하게 보내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중혼을 하고 싶어 한다. 이유는 한 번 결혼해봤더니 좋더라는 것인데 독신을 주장하던 사람이 한 번에 두 남편을 두고 싶어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덕훈은 인아와 이혼을 하거나 중혼을 허용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인아와 헤어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 결국 덕훈은 인아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그녀의 외도는 물론이고 중혼마저 동의해주는 ‘부부 양해형 외도’에 참여하게 되고 만다.

그녀를 포기하고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평범한 애인을 만나고 간혹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 일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미안함에 더 잘해주려 애쓰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간단

81) 위의 책, 110면.

하고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다른 여자들이야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지만 그녀를 정리할 수는 없었다.⁸²⁾

덕훈은 결국 아내의 중혼을 허용하게 된다. 여기에 작용하는 사랑의 형태를 지적하자면 기든스가 말하는 전형적인 낭만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낭만적 사랑의 특성인 ‘유일성’과 ‘영원성’이 인아에 대한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합류적 사랑의 개념도 함의된다. 따로 흐르던 두 개의 지류가 만나 합쳐 흐른다는 의미의 합류적 사랑은 ‘타자의 개별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개방되고 평등한 의사소통’이며 ‘끊임없이 협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내를 완전히 잃느니 반이라도 갖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덕훈은 아내의 중혼을 허락하고 인아는 또 한 번 결혼을 한다.

외도란 원래 결혼이 아닌 이성과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엄격히 말하면 덕훈도, 새 남편도 외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녀의 두 번째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도 지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외도로 간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인아가 외도를 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성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도 아니고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 자신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좋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자 결혼을 하고 싶어졌을 뿐이다.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오직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결혼하면 배우자한테만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⁸³⁾

요약하자면, 인아가 외도를 하게 되는 것은 우선 자유분방한 정조관념이 이유이다. 그리고 결혼의 배타성이나 구속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관습이나 제도에 얽매인 연애관에서 벗어나 비독점적 다자간의 연애를

⁸²⁾ 위의 책, 48면.

⁸³⁾ 위의 책, 85면.

주장하는 것이다. 인아가 결혼을 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사랑의 대상은 수시로 바뀔 수도 있으므로 외도는 물론 중혼에 있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다. 오히려 배우자의 모든 것을 철저히 인정해주고 ‘관계의 지속을 가치롭게 만드는’ 요소로서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한마디로 다양한 남성과 비독점적인 연애를 하기 위한 외도인 것이다.

나. 외도의 진행과정

평소 독신을 주장했던 인아는 자유연애주의자이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절이데올로기에서 크게 비껴나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녀는 소유의 개념을 버리고 다자와의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으로부터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 덕훈은 사회의 통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결혼으로 인한 소유와 구속을 당연시한다. 그러한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한다. 물론 철저한 독신주의자인 인아를 설득하기 위해 덕훈은 인아의 남자관계를 완벽하게 묵인하기로 한 전제에서 가능한 결혼이었고, 결혼 후 덕훈은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내색을 하지 않을 뿐 그녀의 생각에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어른의 사랑에서는 누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문제만큼이나 ‘누가 누구와 잤는가 하는 잔인한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잔인한 문제는 사랑도 의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에 관한 한 고통은 온전히 내 몫이었다.⁸⁴⁾

이렇듯 덕훈은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질투를 이겨내고 아내의 사생활을 인정했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다자간 연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일 뿐이다.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기든스의 합류적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즉, ‘파트너 각자의 섹슈얼리티를, 관계를 일궈가기 위해 꼭 협상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정하여 사랑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합류적 사랑의 측면을 그대로 실천한다. 따라서 남편의 양해 하에 이루어

⁸⁴⁾ 위의 책, 50면.

지는 인아의 외도는 피트먼이 분류하는 ‘부부 양해형 외도’의 전형이 된다.

그리고 인아는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남자들과 어울리거나 외박을 한다. 그러면서도 남편과의 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으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다. 그러나 덕훈의 말처럼 ‘너무 좋은 남편’을 둔 것이 화근이 된다. 즉, 그녀가 중혼을 원하게 되는 계기는 덕훈과의 결혼이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인아는 주장한다. 그리고 덕훈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서라도 그 남자와의 결혼을 결행하려 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당신과 결혼했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 당신과의 결혼을 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리고 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전부야.”⁸⁵⁾

인아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정부(情夫)로 만들고’ 싶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정부(情婦)가 되고 싶지 않아 또 한 번의 결혼을 한다. 이로써 두 명의 남편과 두 곳의 시집, 두 곳의 가정을 두게 되고 주말과 평일의 주기를 가지면서 두 개의 결혼생활을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바쁘게 두 집을 오가며 굳이 중혼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소설 속에서 인아는 아무 불만 없이 두 개의 가정을 돌본다. 더욱이 덕훈은 중혼을 한 아내에 대한 심술로 일부러 집안을 어질기도 하고 가사노동을 전혀 분담하지도 않지만 인아는 마술처럼 집안을 치우면서 두 집 살림을 해낸다.

인아는 중혼의 생활을 마음껏 즐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끔은 남자와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된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인아는 맨 먼저 덕훈과 함께 두 명의 아빠와 엄마 아이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네 개의 초를 케익에 꽂고 자축을 한다. 그리고 그날부터 프리랜서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 두고 태교와 출산 준비에 전념한다.

딸을 출산을 한 후 인아는 매우 ‘뿌듯해’ 한다. 남편들 앞에서 더욱 당당해지고 행복해 한다. 그러나 덕훈은 딸아이가 예쁘면 예쁠수록 친자여부가 궁금해진다. 그래서 친자확인검사를 시도해보려 하지만 인아의 완강한 거

⁸⁵⁾ 위의 책, 134면.

부로 불가능해진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덕훈과 인아의 새 남편이, 반목의 관계에서 벗어나 동료의식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아내를 나누어 갖고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사이 그들은 어느새 미미하지만 가족애가 생긴 것이다.

“어떤 집은 엄마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아빠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보면 어떤 집은 아빠가 둘인 집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손가정하고 우리가 같아?”

“결손가정? 가족 구성원 하나 없으면 결손가정인 거야? 가족 구성이 이래야 하나라고 정해진 건 없잖아? 엄마나 아빠 중 하나가 없어서 결손가정이면, 아이가 없으면 그것도 결손가정이야?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과잉가정인 거야? 또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것도 과잉가정이야?.....(중략).....가족이 어떻게 구성되고 가족 수가 몇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끼리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화목한가가 중요하다는 거지.”⁸⁶⁾

비독점적 다자간 연애를 주장하는 인아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는 인용문이다. 여기서 작가는 인아가 출산한 아이를 딸로 설정하는 것은 부계계승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현행법의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이 벽차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인아라는 인물이 지닌 성격도 소설의 말미에 가서는 다소 흔들리고 있다.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게 두 배가 아니라 서너 배 더 힘든 일이라는 독백과 함께 중혼에 대해서도 ‘그냥 어쩔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이라는 발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딸의 환경을 위해 대한민국이 아닌 좀 더 열린사회로의 이주를 계획한다. 덕훈이 폴리아모리스트(집단혼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미국의 한 곳을 제의하자 강한 거부를 보인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거창한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가족끼리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반응이다.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유지해온 태도와는 달리 비독점적 다자간 연애관의 주장이 개인적인 사건으로 전락해버리는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결국 그들 모두는 편견이 비교적 덜하고 일부일처제의 결혼 제도에 대해

⁸⁶⁾ 위의 책, 238-239면.

다소 탄력을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뉴질랜드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떠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 세 남녀 사이에서는 소유의 개념을 배제한 결혼관이 소통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혼은 불법이며 중혼의 가족이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비독점적 다자간 연애를 펼쳐가던 인아라는 여성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도만으로 그치지 않고 중혼을 결행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골자이다. 그런데 중혼이 금지된 우리 사회에서 또 한 번의 결혼은 인정받지 못하므로 결국 외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외도 모티프는 남편의 양해 하에 이루어진다. 아내의 사생활을 인정함으로써 기든스가 말하는 합류적 사랑을 실천하는 셈인데 이러한 외도를 주관한 당사자인 인아의 관점에서도 중혼은, 자유롭고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있다.



다. 외도의 결과

합류적 사랑은 능동적이며, 그래서 낭만적 사랑의 복합체가 가진 ‘영원한, 그리고 하나뿐이며 유일한’ 특성과 어긋난다. 오늘날 여기의 ‘별거하고 이혼하는 사회’는 합류적 사랑이 부상하게 된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의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합류적 사랑이 현실적 가능성으로 점점 강화될수록 ‘특별한 사람’의 발견이 갖는 가치는 떨어지고 ‘특별한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게 된다.⁸⁷⁾

위의 인용문은 별거나 이혼이 잦아진 현상이 합류적 사랑의 개념이 확산된 결과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합류적 사랑이란 두 사람의 주체성이 과거에는 달랐음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 새로운 주체성을 협상해가는 사랑을 말한다. 따라서 낭만적 사랑에서 특별한 사람의 발견으로 인해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것과는 달리, 서로 실망을 느끼게 될 때는 쉽게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아내가 결혼했다』에 등장하는 외도 모티프는 그러한 합류적 사랑의 관계성에 대한 강조에 부합되는 작품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배타적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생활을 참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아내가 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혼을 선언하고 나오는데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남편이 등장해 ‘부부 양해형 외도’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소설에서 인아는 중혼을 한다. 그런데 중혼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앞에서 본 소설 『결혼은 미친 것이다』의 두 집 살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의 작품이 숨겨진 외도에 관한 것이라면 이 소설에서는 남편의 양해하에 드러내놓고 피우는 바람이라는 차이가 있는 정도다. 조촐히 결혼식을 한 번 더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절차까지 거치지만 누구에게도 중혼 사실을 알릴 수가 없다. 그들 세 남녀의 비독점적인 연애관은 아무에게서도 이해받지 못한다.

“용납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중략).....정말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감정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마음이 떠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두 사람

⁸⁷⁾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108면.

을 동시에 사랑하는 일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⁸⁸⁾

인아의 새 남편을 통해 이야기되는 이러한 발상은 결국 ‘부부 양해형 외도’로 진행된다. 또 한 번의 결혼을 한 뒤 인아는 두 곳의 신혼집을 오가며 두 남편과 두 곳의 시집을 관리한다. 그리고 가사일도 두 배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기존의 가치관을 그대로 신봉하던 덕훈의 생각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고작 바람 한 번 피웠다고 감행한 이혼은 내가 보기에선 사치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수많은 부부들이 그 이유로 이혼을 한다. 바람을 피우는 건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남자들은 자신이 오쟁이 지는 사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⁸⁹⁾

숨어서 피우는 바람 정도로 이혼을 한 친구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덕훈이 합류적 사랑의 개념을 체화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합류적 사랑이란 기든스의 말처럼 ‘이성애여야 할 필요도 없고 반드시 일부일처제여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외도 정도는 결코 이혼의 이유가 되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의 중혼에 대해 적응해 가기 시작한다.

두 남편 사이를 오가던 인아는 그녀의 두 번째 결혼이 그러했듯 느닷없이 임신을 한다. 소설이 끝날 때까지 누가 아이의 아버지인지는 밝혀지지 않는데, 그것은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것이 크게 의미를 갖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인아는 딸을 출산하고 육아에 몰입하면서 남성편력이 심하던 모습에서 탈피해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모습으로 옮겨간다. 두 남편들 외에는 더 이상 남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육아와 가정에 전념한다. 그리고 딸에게 쏟아질 사회적 편견을 우려해 이민을 계획한다. 캐나다나 미국 등, 편견이 덜한 곳을 물망에 올려보다가 결국 뉴질랜드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남편을 설득한다. 그리고 그 곳에서는 경제적 사정상 새 남편도 한 집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남편에게 주지시킨다. 처음에는 강한 거부를 보이던 덕훈은 지금까지 모든 일에 그래왔듯이 이민에 대해서도 순응하게 될 것을

⁸⁸⁾ 박현욱, 앞의 책, 157면.

⁸⁹⁾ 위의 책, 163면.

암시하면서 소설은 끝난다.

인류학자 헬렌피셔에 의하면 인간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될 때는 대략 세 단계에 걸쳐 비정상적인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한다. 먼저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는 시기에는 뇌에서 도파민이 과잉 분비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행복감에 빠져든다. 그리고 일단 호감을 지나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될 때는 페닐에틸아민이 만들어져 천연 각성제 구실을 하므로 비정상적인 열정이 분출된다. 그 다음 단계로는 옥시토신이 과잉 분비됨으로써 성적 충동으로 이어진다. 즉, 뇌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현실감이 사라지고 극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태를 일컬어 사랑이라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체에 병균이 침입하면 방어기제가 작동해 스스로 균형을 찾듯이 이러한 호르몬의 과잉상태도 오래 가지는 못한다. 개인차가 심하지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0개월 안에 호르몬은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랑에 이르게 되고 열렬한 연애를 통해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생활이 진행될수록 퇴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랑에 대한 향수와 새로운 기대를 하게 만들고 외도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⁹⁰⁾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사랑 또는 결혼의 배타성에 대한 문제 제기일 것이다. 유일하고 영원할 것을 전제로 하는 낭만적 사랑의 개념과는 달리,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상대방보다는 그 관계성에 의존한 결혼관을 이야기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외도라는 행위에 대해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수용의 여부를 묻는 것이 이 소설을 쓴 의도일 것이다. 기존의 관습과 평균적 가치관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덕훈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아내의 외도를 수용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기든스가 말하는 합류적 사랑의 핵심인 서로의 고유성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는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구속보다는 가족으로서의 수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일 것이다.

요약하자면, 성적으로 자유분방하던 인아라는 여성이 남편의 양해 하에 중혼의 형태로 외도를 한다. 외도라는 행위에 대해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상대의 고유성에 대한 인정의 관점을 역설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 소설에서의 외도란 당사자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일 뿐 배우자의 권한 밖이라는

⁹⁰⁾ 도정일·최재천, 『대답』, 휴머니스트 퍼블리싱 컴퍼니, 2005, 443-446면.

‘부부 양해형 외도’의 모티프가 드러난다.



IV. 현대소설에 나타난 외도 모티프의

시대적 의의

원시인간들은 남녀 사이에 고정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난교를 했다고 한다.⁹¹⁾ 고정된 성적 파트너를 두지 않는 난교의 습속은 중세까지도 이어졌다.⁹²⁾ 현대 인류에 비해 지극히 본성에 충실했던 원시인들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나 그 구속력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후손인 현대인에게는 일부일처(중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의 결혼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관점으로 보자면, 급증하는 외도 현상과 이혼, 그로 인한 가족의 와해 등이 결국은, 일부일처의 결혼제도로 인해 인간 본성이 억압당하는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대 인류가 난교를 했다면 중세에는 상속과 장자 계승을 위해 결혼제도를 도입 했다. 엥겔스에 의하면 일부일처제는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에 따른 가족 형태라고 한다. 이러한 결혼의 목적은 아내로 하여금 권력과 부(富)를 상속할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결혼의 의미가 남녀의 화합이라기보다는 재산을 지키는 수단이었고 성적 억압의 모태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권력과 부의 편재로 인해 지배계급으로 부상한 남성은 여성에게는 정절을 강요하고, 여자 노예 또는 영업적 매춘으로 남성

91) 아브라함 브론스키, 최희선 역, 『결혼의 기원과 역사』, 진화당, 1986, 21- 22면 참조.

92) 원시 인류의 난교적 결혼 형태가 일처다부 또는 일부다처로 잔존하는 것은 중세를 지나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중세에는 초야권에 관한 습속, 즉 결혼 초야에 신부가 신랑 외의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는 습속이 있었다. 인디아의 마라발 해안지방에서는 승직자인 브라만이 신부의 파소, 즉 처녀막을 파손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아내를 맞아들이면 먼저 초야에 유덕한 브라만을 찾아가 신부를 동침시키고 그 파소의 대가로 다카금화를 지불해야 결혼이 성립되었다. 남미의 브라질에 사는 인디언 중에 몇몇 부족은 의사 내지 추장에게 초야권이 인정되고, 아프리카의 기아나의 아라와크족과 현재 베네수엘라의 크나마 지역에서도 승려에 의해 신부가 파소되지 않으면, 아내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중대한 범법행위로 간주되기까지 한다. 초야권의 이러한 유사한 습속들은 남자가 결혼에 앞서 스스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대표(승려, 추장, 왕)에게 자기신부를 제공함으로써 이전에 공동으로 누리던 성적 권리를 혼자 점유함에 대해 허가를 구하는 차원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런데 극도로 문명화된 오늘날에도 형제일처혼이나 자매일부혼의 형식이 남아있는 티베트의 결혼이나 아랍 일부 지역에도 일부다처제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잦은 전쟁으로 인한 과부와 고아에 대한 대책이라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일부일처만이 인류에게 유일한 결혼 형태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위의 책, 55-61면 참조.)

의 외도는 합법화했다. 따라서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는 여성에게는 억압에 대한 반발로, 남성에게는 합법적 매춘의 형태로 외도를 지향하게 만들기도 한다.⁹³⁾

본격적인 연애결혼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일부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이에서였다. 이들은 재산이 없으므로 굳이 사랑을 혼외의 요소로 치부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무산계급의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산 상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애착이었으며, 이 점은 오늘 날의 결혼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적어도 지금은 결혼을 논함에 있어 사랑은 빼놓을 수 없는 기준이며 본 논문에서 말하려는 결혼의 또 다른 얼굴인 외도와 이혼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나 사랑은, 표면적으로 정서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심층적으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며 시대적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한 마디로 '사랑이란 전혀 새로운 어떤 개인적 성취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들을 새롭게 배열한 것'⁹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생활을 통해 삶의 질이 얼마나 보장되는가 또는 얼마나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결혼생활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움이 사라지는 만큼 성취도도 낮아진다. 그러므로 새로운 대상을 통해 자아감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늘 잠재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세 작품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형태의 외도가 일어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보복의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결혼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낭만적 사랑을 외도를 통해 꿈꾸기도 한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소유욕 대신 성적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도도 있다. 그 외에도 단순한 섹슈얼리티의 구현을 비롯해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되는 기혼자의 매춘, 단순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외도, 그리고 정서적 고립감을 극복하는 방편으로서의 외도 등 다양한 이유로 외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외도의 여러 형태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사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외도는 엄연히 제도를 이탈하는 행위이고 경우에 따

⁹³⁾ 프리드리히 엥겔스, 앞의 책, 83-88면 참조.

⁹⁴⁾ 제크린 살스비, 앞의 책, 16면.

라서는 명백한 범법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이란 가변적인 것이고 결혼이 개인의 감정까지 통제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국적이나 신분, 가문 등의 배경 대신 개인의 능력으로 정체성이 확립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로 인해 다른 어떤 가치보다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 존재감을 획득하려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⁹⁵⁾ 그 결과 결혼제도 안에서 사랑을 상실한 사람들은 제도를 이탈해서라도 사랑을 꿈꾸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외도에 대해 폄하하거나 죄악시하기 이전에 급격히 늘어난 외도 현상의 배경과 의미를 따져보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우발형 외도’의 전형인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 등장한 외도 모티프는, 남편의 사랑과 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여성이 남편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다른 대상을 찾아 인생의 의미를 실현해가는 서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독립적이지 못한 여성이 대상을 달리해 추구하는 사랑은 자폐적이며 편집적인 모티프로 나타난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외도는 결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소설에서 미혼은 정서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다. 외도를 통한 인간관계 역시 이러한 성향을 탈피하지 못한다. 외도의 대상이었던 규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유희일 수도 있지만 또 한 번 모든 의미를 사랑으로 한정해버리는 미혼은 규와의 사랑을 통해서만 존재감을 가질 수 있었다.

미혼의 외도가 현실을 무시하고 열정적 사랑의 맹점에 함몰되어가는 것은 주체적 자각을 잃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십대에 만난 남편에게 마음을 끌리면서 독립적 존재로서의 자아는 상실되고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재기 불능의 공황상태에서 헤어날 수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외도 또한 마찬가지로 패턴으로 진행된다. 규에게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현실을 망각하고 자아감을 상실한다. 사랑을 통해서만이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는 극히 위험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모티프로 외도가 진행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정치, 경제, 문화, 정신과 정서 그 모든 것의 주축이 남편이라고 가르쳐왔다. 가부장적 질서는 순응적인 여성상을 고착화

⁹⁵⁾ 올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 공저, 앞의 책, 8면 참조.

하고 남성의존적인 여성을 ‘여성다움’으로 미화시켜왔다. 주체성을 말살시키고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부수적인 인간형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따라서 가부장제의 요구에 부합되는 여성일수록 남성 의존적 성향이 강하다.

이 소설의 결말이 등장인물 모두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자기성찰 없이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여성의 의존성에 대한 지적인 동시에, 외도를 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재점화하려는 작가의 의도일 것이다. 소설에서 먼저 외도를 시작한 쪽은 남편이지만, 남편의 외도는 ‘사고’일 뿐이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된다. 그러나 아내의 외도는 끝내 용서받지 못한다. 더욱이 여성이 성욕을 통제하지 않고 마음껏 섹슈얼리티를 발현하게 될 때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가를 고발하는 작가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즉, 외도를 통해 열정적 사랑을 추구하고 통제 없이 성욕을 실현해가는 여성은 결국 모든 걸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간통법이 현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규범인 것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의 외도 모티프는 ‘낭만적 사랑형’ 외도이다. 처음부터 결혼이 아닌 외도를 통해서만 사랑을 추구하는 연희라는 인물이 등장해 소설을 이끌어 가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한다. 결혼을 통해서든 외도를 통해서든, 진정성을 상실하고 있는 인간관계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결말에서 이렇다 할 사건도 없이 외도를 멈춘다는 설정은 결혼과 사랑을 분리하고 철저히 경제논리로 인간관계를 맺던 연희의 반성에서 기인한다. 즉, 제도 안의 관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냐를 묻는 것이다.

근대성의 등장으로 개인은 미리 정해진 신분적 운명이나 전통 또는 자연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이 자유는 또한 무한정의 불확실성 및 타협, 선택지들 앞에 던져질 자유이기도 하다.....(중략).....현대인은 소속도, 전통도 떨쳐낸 오만한 ‘나’로서의 이러한 불확실성의 세계를 향하도록 요구 받는다. 그러한 그/그녀에게 사랑은 그 자신을 정박시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⁹⁶⁾

인용문에서 주장되듯이 현대 사회에서 사랑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외도모티프

⁹⁶⁾ 위의 책, 12면.

는 강한 시의성을 갖는다. 즉, 스스로를 상품화할 만큼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외도를 통해서라도 인간적인 관계를 열망하는 것 또한 현대인의 한 단면임이 잘 드러난다. 특히 시종일관 이기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연희가 자기로 인해 상처받는 준영의 모습을 발견하고 급기야 사랑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말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랑이란 교환가치 이상의 것임을 역설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아내가 결혼했다』의 ‘부부 양해형 외도’는 합류적 사랑의 실천을 시도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부부는 배우자의 성적 주체성을 인정해주면서 일부일처제의 배타성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사회 표준의 가치관을 지닌 남성이 중혼도 감행하는 여성을 만나, 서로의 결혼관에 대해 탐구하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공감해보려는 노력은 진지하다.

덕훈이, 중혼도 서슴지 않는 아내를 수용해 가는 과정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아내를 다 잃느니 중혼을 허용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게 된 것은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소설에서는 제대로 묶어 두는 사랑은 무의미하다. 서로의 독립된 존재성을 인정하고 상대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소설은 진행된다.

이 소설은 이른바, 비독점적 다자간 사랑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의 소설들과는 달리 외도는 단죄를 받아야 할 일도 아니고 숨겨져야 할 관계도 아니라는 것이다. 선악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문제는 더욱 아니라는 주장이다. 소설에서 예시되고 있듯이 인간은 일부일처형 생물이 아니라고 한다.⁹⁷⁾ 그러나 태생적으로 맞지 않는 일부일처의 결혼제도가 강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면, 성적으로 상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아의 태도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도발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비독점적 다자간의 연애를 펼치기는 하지만 말미에 가서는 등장인물 모두를 이 사회로부터 추방시킨다. 비독점적 다자간의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용되기에는 너무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일

⁹⁷⁾ 로빈 베이커에 의하면 인간은 신체적으로 결코 일부일처형의 생물이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로는 첫 째, 정자의 이중 구조를 들고 있다. 즉, 남성의 정자는 두 가지인데 꼬리가 뺀 모양 외에도 꼬리가 말린 모양이 있어, 여자의 몸속에 사정될 때 다른 남자의 정자를 퇴치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여자의 몸은 각각 다른 정자를 받아들여 정자전쟁을 유발해 몸속에서 우수한 유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중의 성욕주기가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여성의 배란이 숨겨지는 이유는 태생적으로 일부일처형이 아닌 남성을 육아의 조력자로 붙잡아 두기 위한 전략적 진화라는 주장이다. (로빈 베이커, 이민아 역, 『정자전쟁』, 까치출판, 1997, 292-293면 참조.)

것이다.

그리고 소설의 대단원에서 시종일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두 남편이, 가족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다. 이 또한 종래의 가족 개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족 구조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한 번쯤 표면화될 명제이기도 하다.

세 소설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외도에 있어서도 자본논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전업주부인 여성의 외도는 남편에게서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 되고 재력을 가진 남편을 가진 여성은 연인에 대해 주도적인 외도를 펼칠 수 있으며 완벽하게 경제적 독립을 한 여성은 중혼도 가능했다. 물론, 소설적 설정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설이나 영화는 시대상의 거울이라는 것을 전제하면 충분히 현실적 설득력을 갖는다. 외도의 주도성에 있어서도 경제논리가 적용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개인화되고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소외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도는 개인적인 고립이나 소외감을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외도모티프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지금은 결혼이라는 제도보다는 사랑이라는 친밀성에 의해 관계가 설정되는 시대이다. 순수한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로 이행될수록 관계는 개인의 의지에 따르는 성향이 강해지고 당사자 간의 기대와 충족이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쉽게 외도로 연결된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나 새로운 기대, 그리고 성적·정서적 욕구 등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다. 물론 텍스트의 서사구조가 보여주듯이 외도를 통해 사랑을 이루려는 시도는 좌절되고 그 사랑이 긍정되지 못하는 결말을 가진다. 그러나 불륜의 동의어인 외도를 미화할 수는 없더라도, 남녀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친밀감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앞으로는 더욱 결혼이라는 제도보다는 사랑이라는 정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간통법이 존치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외도를 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는 한, 외도로 인한 이혼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문제도 여전할 것이다. 제도에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성으로 다가가는 애정관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IV. 결 론

21세기로 진입하면서 눈에 띄는 현상 중의 하나는 이혼율의 급증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그 기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것은, 연령대 별로 이혼율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율과 함께 결혼 5년 미만의 부부 또한 이혼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혼 실태는 결국,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고 결손가정이나 청소년 문제, 그리고 결혼 기피 및 출산을 저하 등과도 연계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혼의 사유를 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급증했다. 여성기소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남편의 외도는 이혼거리가 못 되고 아내의 외도는 바로 이혼으로 직결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외도의 기회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앤소니 기든스에 의하면, 오늘 날의 사회는 관습이나 전통에서 탈피해 개인적 의미에 의해 인간관계가 설정되는 ‘순수한 관계’로의 지향성을 가진다고 한다. 즉, 관계 외적인 의존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관계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에 따라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현대의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와는 달리 결혼으로 충족되지 않는 결핍은 외도를 통해서라도 만족하려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조형적 섹슈얼리티 즉, 재생산의 역할로서의 성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의 개념과 함께 피임법, 낙태술의 발달 등이 가세해 외도는 더욱 가까운 일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외도 현상을 잘 담아내고 있는 소설, 그 중에서도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00년을 전후로 발표된 작품들을 통해 다양하게 혼재하는 외도의 현주소를 점검해보았다. 그 중에서도 여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외도모티프를 중심으로 인물에 초점을 두고 고찰해 보았다. 소설이라는 장르가 그 시대의 문제적 인물을 다루고 그러한 인물을 통해 시대적 가치관을 그려내는 것이라 할 때, 외도로 인한 문제 상황들을 짚어보기에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우선 프랭크 피트먼의 ‘외도의 유형 분류’를 차용했다. 피트먼에 의하면 외도는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사전 계획이나 노력 없이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되는 ‘우발형 외도’가 있고 두 번째는, 단순한 섹슈얼리티를 위해 성적 대상을 찾아 습관화되기도 하는 외도로서 ‘유희형 외도’가 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보완을 위해 배우자가 아닌 상대를 통해 정서적 유대를 시도하는 ‘낭만적 사랑형 외도’, 마지막 네 번째로는, 결혼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용인하는 형태의 ‘부부 양해형 외도’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유형인 ‘유희형 외도’는 제외했다. 이유는 여성의 외도에 있어서 섹슈얼리티는 주된 동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유희적이거나 습관적인 여성의 외도가 등장하는 소설은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도가 성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성 그 자체를 지향하는 외도는 그다지 이야깃거리가 못 된다는 것도 제외시킨 이유이다.

유형분류를 한 다음, 순수한 관계 지향성을 강조하는 앤소니 기든스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각각의 텍스트에 적용시켜 보았다. 즉, ‘열정적 사랑’, ‘낭만적 사랑’, ‘합류적 사랑’의 개념을 중심으로 각 작품 속의 인물이 추구하는 바를 파악해보았다. 그리고 외도에 이르는 동기, 진행과정, 외도의 결과로 나누어, 작중인물이 외도를 통해 이루려 했던 게 무엇인가, 그리고 목적인 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논문을 전개했다.

텍스트는 총 세 편인데,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외도의 모티프가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면에 주제로 부각되는 소설로서, 다양한 외도의 모티프를 보여주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

먼저, 결혼과 성에 있어서 철저히 이중규범을 적용하는 남녀가 등장하는 소설, 전경린의 『내 생애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은 ‘우발형 외도’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는 미혼이라는 인물이 남편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는 외도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기든스가 말하는 열정적 사랑의 전형을 보여주는 형태로 외도가 전개되는데 상대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인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과 연인, 아이까지 모두 파국으로 내몰리는 결말을 갖는다. 즉 보복의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외도가 지나친 열정 속에 함몰되면서 모두의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외도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외도하는 여성은 단죄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성욕을 통제하지 않고 섹슈얼리티를 실현해가는 여성은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작가가 이러한 잔인한 결말을 설정한 것은,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성규범을 논점으로 제시하고 고발하려는 의도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두 번째 텍스트는 이만교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이다. 이 소설의 외도는 ‘낭만적 사랑형 외도’로 분류할 수 있다. 결혼의 상업성을 체화하고 있는 연희라는 여성이 남편에게서 결핍되는 정서를 채우기 위해, 혼전부터 연애했던 남성과 만나는 외도가 진행된다. 그러다 여성의 주도하에 전개되던 외도가 어느 순간 반성적 성찰에 이르면서 스스로 절제를 시도하는 것을 결말로 한다. 기든스의 낭만적 사랑의 요소가 농후한 소설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기존에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두 집 살림’이 여성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남편의 경제력을 통해 물질적 우위를 선점한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에서 간과할 수 없는 쟁점은, 사랑을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스스로 상품화시켜 결혼시장에 내놓을 만큼 상투적인 현실을 살고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텍스트는,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인데 이 작품에서는 중혼의 형태를 취하는 외도가 등장한다. 전형적인 ‘부부 양해형’의 외도로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 다양한 남성편력을 위해 중혼을 시도하는 여성이 두 남편을 오간다는 것이 주된 서사이다. 그러한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자 갑자기 모성적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결말은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배우자의 양해 하에 일어나는 외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것으로 충분한 의미를 지니는 소설이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중혼이 가능할 만큼 여성이 주도적인 외도를 펼치는 것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 여성이 남편의 재력을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경제적 독립을 한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결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배우자가 성적 자율성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개인적인 모험일 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 등

장인물 모두가 결국은 이민의 형태로 추방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외도와 그로 인한 이혼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제도화된 관습보다는 개인적 선택 기준, 즉 배우자와의 친밀성 여부에 의해 관계가 설정되는 시대인 만큼, 외도에 대한 생각도 변해야 할 것이다. 제도에 의존한 관계가 아니라 배우자의 정서를 인정하고 합일점을 찾아가는 애정관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전경린,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 문학동네, 1999.

이만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민음사, 2000.

박현욱, 『아내가 결혼했다』, 문이당, 2006.

2. 논문

김무숙, 「전경린의 『내 생애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에 나타난 외도와 이혼에 관한 고찰」, 『새얼논문집』 제14권 제1호,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새얼어문학회, 2001.

김미정, 「어떤 호모루텐스들의 기원과 발생 ; 박현욱의 『동정 없는 세상』, 『새는』, 『아내가 결혼했다』를 중심으로」, 『문학사상』 2006년 7월호, 문학사상사, 2006.

김수연, 「친밀성을 중심으로 본 결혼과 이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용희, 「결혼과 일상에 대한 문화비평적 접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김윤선, 「한국현대 소설에 나타난 부부 정체성」, 『인간연구』 제10권 제2호, 카톨릭대학교 인간연구소, 2006.

김은정,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해체 모티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정석,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06.

김형중, 「최근 소설의 영화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정경운, 「여성의 ‘몸’을 보는 두 개의 서사 ; 문자와 영상-전경린의 『내 생애 하루뿐인 특별한 날』과 변영주의 『밀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박경숙 외 2명,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한국인구학』 제28권 제5

- 호, 한국인구학회, 2005.
- 백수진, 「여성작가들의 텍스트에 드러난 여성의 삶과 의식 모티프」, 『여성연구논집』 제16집,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5.
- 백지연, 「낭만적 사랑은 어떻게 부정되는가」, 『창작과 비평』 2004년 여름호, 창작과비평사, 2004.
- 손정연, 「결혼의 질, 이혼 장애 요인,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이혼 후 적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유재성, 「한국 이혼율 감소를 위한 제안」,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04년 7월호, 한국기독교 상담학회, 2004.
- 윤지관, 「비평은 있다-신경숙·은희경·전경린과 관련하여」, 『창작과 비평』 2002년 겨울호, 창작과 비평사, 2002.
- 이상경,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의 탐구」, 『한국 문학 연구』 제5권 제5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 연구소, 1997.
- 이정미, 「페미니즘 소설 인물의 행복한 반란과 불행한 반란」, 『문예운동』 2008년 봄호, 문예운동사, 2008.
- 정기원·성한기,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2006.
- 정혜경,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변모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채민정·박혜인, 「여성의 결혼사회화, 결혼결정과정, 결혼현실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과학논집』 제24권 제3호,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8.
- 천정환·이종갑, 「외도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교정복지연구』 제9집, 한국교정복지학회, 2007.
- 황광우, 「결혼과 가족에 대한 두 개의 영화」, 『사목』 2004년 4월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4.
- 현경자,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3. 단행본

-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 김혜니, 『외재적 비평문학의 이론과 실재』, 푸른사상, 2005.

도종일 · 최재천, 『대담』, 휴머니스트 퍼블리싱 컴퍼니, 2005.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 2001.
 송명희, 『섹슈얼리티·젠더·페미니즘』, 푸른사상, 2000.
 송명희, 『타자의 서사학』, 푸른사상, 2004.
 송명희 · 여성연구회, 『페미니스트, 남성을 말한다』, 푸른사상, 2000.
 송명희 · 여성연구회, 『우리 이혼할까요』, 푸른사상, 2003.
 송 무, 『젠더를 말한다』, 박이정, 2003.
 심영희,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회, 1991.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이유출판, 2003.
 이선영 · 박태상, 『문학비평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5.
 이영숙, 『혼외관계의 이해』, 학지사, 2000.
 이정덕,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학지사, 1988.
 임금복, 『현대여성소설의 페미니즘 정신사』, 새미, 2000.
 임예숙, 『외도, 결혼제도의 그림자인가』, 형성사, 1996.
 최재천, 『가족, 부활이나 몰락이나』, 나무생각, 2006.
 태혜숙, 『한국의 탈식민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004.
 하웅백,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도서출판 이레, 1997.

4. 번역서

데이비드 버래쉬 · 주디스 이브립턴, 이한음 역, 『일부일처제의 신화』, 해냄출판사, 2002.
 돈 데이비드 러스트먼, 노혜숙 역, 『외도, 그 후...』, 푸른 숲, 2004.
 로더릭 필립스, 박범수 역, 『이혼의 역사』, 동문선, 2001.
 로제다둔, 신정아 역, 『에로티즘』, 철학과 현실사, 2006.
 아브라함 브론스키, 최희선 역, 『결혼의 기원과 역사』, 진화당, 1986.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 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사랑과 성, 에로티시즘』, 새물결, 2000.
 오바라 요시아키, 신유희 역, 『이브의 가슴』, 휘닉스, 2006.
 율리히 벡 · 엘리자베스 벡 · 게른샤임, 강수영 외 역,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2006.
 채크린 살스비, 박찬길 역,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9.

프리드리히 엥겔스, 김대웅 역, 『가족, 사적소유, 국가의 기원』, 아침출판, 1991.

5.인터넷 자료

KOSIS(국가통계포털),이전의 대한민국 통계정보 홈페이지

(<http://www.stat.go.kr/statcms/main.jsp>의 변경된 명칭.

